



외대학보



2 신축 건물의 균열, 괜찮은 것인가?

7 세계 주요대학 랜드마크

9 사하공화국과 아쿠트어 이야기

12 언어는 내 운명, 유재원 교수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한국외대체가 만들어졌다

최근 주요대학들이 UI디자인의 고급화와 차별화를 위해 대학 고유의 전용서체를 개발하여 고유브랜드로 활용하고 있다. 이에 우리학교도 이미지 제고와 브랜드 고급화를 위해 전용서체를 개발했다. 앞으로 광고홍보물·포스터·신문·간판 등 마케팅 활동 전반에서 적용돼 활용 할 예정이다. 외대전용서체는 매뉴얼 구성 후 외대구성원들에게 무료로 배포될 예정이며 2015년부터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양 배움터 총학생회 선거 본격적인 시작

이번 달부터 총학생회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지난 해 서울배움터는 총학생회 후보가 나오지 않았고, 글로벌배움터는 단일 후보가 출마했으나 유효투표율 50%를 넘지 못해 양 배움터 선거가 무산됐다. 이에 양 배움터는 이번 해 3월 말에서 4월 초 보궐선거를 실시했다. 그 결과 서울배움터는 제 48대 총학생회 '외대스캔들' 선분이 당선됐으나 글로벌배움터는 후보가 나오지 않고 무산돼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에 이현민(공대·전자 12) 군은 "비상대책위원회는 아무래도 학생들이 직접 뽑은 대표는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도 부족했고 불만

족스러운 점이 많았다"고 전했다. 서울배움터 '제 49대 총학생회 선거'는 이번 달 13일 오전 6시부터 24일 오후 12시까지 선거운동기간이다. 또 이번 달 25일, 26일 이틀 간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진행되며 예비일 2일 연장이 가능하다. 당선 공고는 27일 오후 8시이며 예비일 사용여부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글로벌배움터 '제 36대 총학생회 선거'는 주말을 제외하고 이번 달 10일부터 24일까지 후보자 유세기간이다. 그리고 25일 각 후보자 선거결산자금 공개를 하고 25일에서 27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투표 마지막 날인 27일 개표를 하고

다음 달 1일에 당선자를 공고한다. 글로벌배움터의 자세한 시간은 추후 공지될 예정이다. 양 배움터의 총학생회 선거를 앞두고 김영호(국제·14) 군은 "투표하기 전 우리 학교의 문제점 및 바라는 점과 후보 공약을 잘 비교해 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또 이현민 군은 "지난 해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으니 다음 해는 꼭 학생들이 직접 뽑은 총학생회장이 학교와 학생을 위해 활동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이중전공, 알아보고 갑시다

이번 달 24일부터 28일까지 이중전공 배정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해 초에 실시된 본·분교 통합으로 인해 이번 이중전공 신청에는 많은 변동이 있다. 달라진 점으로는 △배움터의 경계 없는 이중전공 신청 △이중전공 배정 기준 추가 △기존의 2·3지망 지원 방식 폐지 및 부전공 신청 기간 변경 등이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양 배움터 학생 모두가 소속 배움터에 없는 과에 한해서 다른 배움터의 이중전공도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다. 각 학과는 지원받은 학생들을 같은 기준에 따라 선별하고, 합격한 학생들은 함께 수업을 받게 된다.

각 학과별로 이중전공 배정 기준도 바뀌었다. 9월 25일에 △경영학부 △국제통상학과 △정치외교학과 △베트남어과의 변경된 선발 기준이 발표됐다. 경영학부는 과정을 1차와 2차로 나눠 1차에선 영어성적을, 2차에선 경영학 기초 필기고사를 통해 학생을 선발한다. 한편 국제통상학과는 학과 자체 시험과 학점을 절반씩 반영하도록 변경했고, 정치외교학과는 면접을, 베트남어과는 어학성적을 새로운 평가 기준으로 추가했다.

경영학부의 1차 기준인 영어성적은 대부분의 단과대학의 졸업기준과 비슷하거나 더 높다. 이 점에 대해 이혜정(자연·생명공학 09) 양은 "1학년들이 신설된 기준에 맞춰 준비하기에 두 달이란 기간은 다소 짧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한 반면, 송석란(서양어·프랑스어 14) 양은 "어차피 영어 성적은 학업 필요한 것이므로 기간은 크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전했다.

또한 경영학 기초 필기고사에 대해서 김지수(서양어·프랑스어 14) 양은 "학문의 내용을 배우기 위해 지원하는 학생에게 미리 배울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학과 별로 다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학과를 줄 세우는 것 같다"며 학과 간 서열화를 걱정하기도 했다. 박상원 국제통상학과 학과장은 새로 추가되는 국제통상학과의 자체 시험에 대해서 "학생들에게 전공 지식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기초 지식 평가를 통해 학업 충실도를 평가할 것"이라고 의도를 전했다.

한편 기존 이중전공 희망 과목을 3지망까지 선택할 수 있었으나 이번 해부터는 1지망만 지원하게 된다. 이에 김미자 서울배움터 학사종합지원센터 팀장은 "시험이 추가된 학과에서는 2·3지망의 학생들을 위해 시험을 다시 볼 수 없는 상황이다"라며 2·3지망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중전공에서 떨어진 학생들은 부전공을 신청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했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한다면 각 학과의 홈페이지를 적극 활용하라"고 권했다.

서울배움터의 학생들이 이렇게 분주한 가운데 글로벌배움터에는 이중전공 배정이 3주도 채 남지않은 7일 아침까지 기준이 공지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조국인(국제지역·프랑스 09) 글로벌배움터 비상대책위원장은 "학생들이 늦어진 공지로 인해 피해 받지 않도록 학생회 내의 상의를 통해 조치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학생들은 입을 모아 이중전공 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한 공지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강효림(동유럽·헝가리어 14) 양은 "정확한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도 듣지 못했다"며 "친구들에게 물어봐도 대부분 모르고 있다"며 이 일이 비단 한 학생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 이에 김 팀장은 "학생들의 요청에 따라 이른 시간 내에 문자 공지를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새로운 외대학보 이제 당신의 손으로 만드세요!

외대학보사 90기 수습기자 및 사진기자 모집

모집기간 : 2014년 11월 11일(화)~11월 26일(수)
모집대상 : 양 배움터 4학기 활동이 가능한 학생

지원서 마감일 : 11월 26일(수)
필기시험 및 면접일 : 11월 29일(토)
합격자 발표일 : 11월 30일(일)

지원서 수령 및 제출

- ▶서울배움터 학생회관 401호 02-2173-2504
- ▶글로벌배움터 학생회관 212호

문의사항 연락처 : 임수진 편집장(010-4257-9732)



학내 브리핑

양 배움터 도서관 온라인 상호대차 서비스 시행

이번 달 3일부터 도서관 온라인 상호대차가 가능하다. 이전까지는 상호대차 신청 시 도서관에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했으나 서비스가 시작되면서 온라인으로 상호대차 신청이 가능해졌다. 이 서비스는 소속 배움터 도서관에서는 미소장 자료, '대출중' 혹은 '소재불명' 자료지만 타 배움터 도서관에서는 '대출 가능'인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자료 검색 후 '해당자료 상세보기'를 통해 상호대차 신청이 가능하며, 도서관 보관일수는 신청자료 도착 후 3일까지다. 3회 이상 신청자료를 찾아가지 않을 경우 60일간 서비스 이용이 금지된다. 신청자료 처리시간은 도서관 홈페이지에 자세히 기재돼 있다. 처리시간 내에 신청하면 다음날 도서 수령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2일 후 수령 가능하다. 단, 토, 일, 공휴일에는 수령이 불가능하다.

무료 국제전화 서비스 이용하세요

우리학교 정보지원처는 이번 해 9월까지 무제한 국제전화 통화서비스를 제공해왔다. 그러나 서비스 대행업체가 국내 사업을 철수함에 따라 일정기간 서비스를 중단했다. 이에 11월부터 별정통신 사업자와 협업을 추진해 국제 무제한 통화서비스를 재개한다. 서비스 국가는 미국, 캐나다, 중국 등 40개 국가와 1개 도시이며, 양 배움터 기숙사 등의 구내전화로 국제 무제한 통화가 가능하다. 이용방법은 '전화기 다이얼 숫자 7+483700+국가번호+전화번호+#'을 누르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공지'를 참조하길 바란다.

학사경고 기준 변경 확인하세요

이번 학기 말부터 학사경고 기준이 완화된다. 학교 측은 학업 성적 저조자에게 학업 기회 제공을 위해서 학칙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현 시행중인 학사경고 기준은 학업성적 평점평균(이하 학점) 2.00미만이지만 변경되는 기준은 학점 1.75미만이다. 또 학점 1.50미만으로 학사경고 3회, 학점 2.00미만으로 학사경고 4회를 받으면 학업제적 대상이지만 변경되는 기준은 학점 1.75미만 4회를 받으면 제적 대상이 된다. 단, 규정개정 전 받은 학사경고 횟수는 그대로 유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학교 홈페이지 '학사'를 참조하길 바란다.

글로벌배움터, 새 건물 안전한가?

세월호 사건을 필두로 최근 제 2 롯데월드에서 이르기까지 안전문제가 화제의 중심에 서있다. 이와 더불어 학내에서도 안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글로벌배움터에서 2011년과 2014년에 각각 완공된 기숙사와 백년관에서 균열이 발견됐다. 이번 기사는 이 균열들이 안전상에 문제가 되는 것인지 명확히 밝히고, 앞으로 어떻게 조치할 계획인지를 학생들에게 알려주려 한다.

백년관 화장실에 균열이?

글로벌배움터의 백년관은 이번 해 6월 14일에 완공된 신축 건물이다. 그 이후 여름방학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 9월부터 본격적으로 학생들에게 개방됐다. 그런데 불과 2개월이 지난 지금 백년관 벽에서 균열이 발견되고 있다. 그곳은 1층부터 5층까지 운행하는 엘리베이터와 인접한 화장실로, 정확히는 2층 남자화장실과 바로 위에 위치한 3층 여자화장실의 벽면이다. 이를 본 김찬미(동남역·마인어 10) 양은 "부실공사일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그런데 이 상황이 낯설지만은 않다. 이미 이전에도 새로 지은 건물의 벽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바로 2011년 8월 22일에 준공식이 있었던 글로벌배움터의 신기숙사의 사례이다. 신기숙사에서 많은 균열이 발견됐다. 한 학기가 지난 지금도 건물 내에 균열들이 많이 남아있어 사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균열의 종류

지난 학기 사생회는 기숙사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 AS소장과 함께 기숙사 안의 균열에 대해 알아봤다. 그 결과 기숙사 내의 균열은 건물의 구조적 결함과 관련 없으므로 안심하라는 진단을 내렸다. 그렇다면 어떤 균열이 안전에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김지호 글로벌배움터 기획건설팀 과장에게 조언을 구했다.

건물의 균열은 '구조적 균열', '비구조적 균열'로 나뉜다. 이 중에서 안전상 문제가 있는 균열은 구조적 균열이다. 이는 주로 건물을 지지해주는 기둥이나 철근에 난 균열로 이 부분에 문제가 있을 시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로까지 이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의 지지부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는 빠



▲건물의 좌·우측을 연결하는 다리.

르게 조치를 취해야 한다.

비구조적 균열은 구조적 균열과 반대로 건물을 지탱하는 것과 크게 관련 없는 부분에 발생하는 균열이다. 비구조적 균열은 주변 습도와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건조 수축 균열'이 있으며, 건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해 생기는 '재료의 이질성에 의한 균열'이 있다. 이러한 균열들은 건물 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구조적인 부분에 발생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비구조적 균열을 유도하는 공정도 있다. 김 과장은 "백년관과 기숙사에서 발견된 균열은 비구조적 균열이기 때문에 안전상에는 절대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

새 건물에서 균열은 자연스러운 일

학생들이 가장 문제로 생각하는 점은 기숙사나 백년관 모두 '새 건물'인데도 균열이 발견됐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이 균열 발생이 과연 정상적인 일인지, 혹시나 부실시공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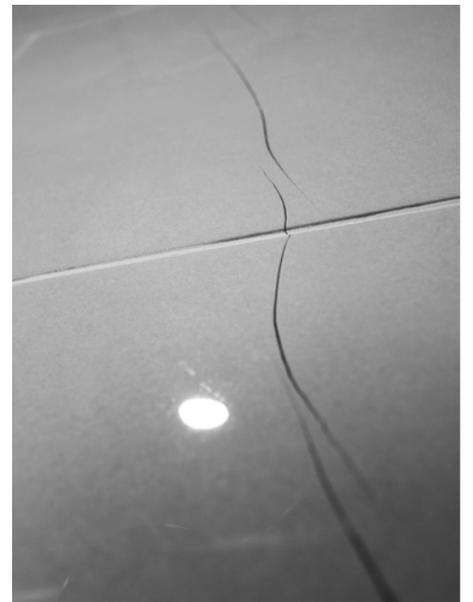
이 의문에 대해 김지호 과장은 "새 건물에서 비구조적 균열이 발생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는 건설 과정을 새 옷을 입는 과정에 비유했다. 사람들이 새 옷을 처음 입을 때부터 몸에 옷이 딱 맞지는 않는다. 옷을 입고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적당히 늘어나며 몸에 맞게 형태가 변한다.

이처럼 새로 지은 건물이 지반과 주변 환경에 맞게 변형이 되는데 이렇게 건물이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이다. 그는 "새 건물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건축한 지 2년에서 3년 동안에 이질적인 재료들이 서로 자리를 잡아가며 발생하는 균열"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숙사 건물은 이제 웬만큼 자리를 잡은 상태"라며 "지금 발생하는 균열들은 건조 수축 균열이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그래도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꾸준히 주시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왜 하필 화장실에?

그렇다면 백년관 내부 중 화장실에서 유난히 눈에 띄는 균열이 발생한 이유는 왜일까? 그 이유는 바로 백년관 저층부를 구성하는 재료, 그리고 건물의 오른쪽 공간과 왼쪽 공간을 이어주는 다리 때문이라고 이야기했다. 백년관의 구조는 크게 1~11층까지 있는 고층부와 1~5층까지 있는 저층부로 나뉜다. 이렇게 나뉘는 이유는 고층부와 저층부를 구성하는 재료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차이로 인해 건물이 자리 잡는 과정에서 균열의 정도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저층부의 구조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Steel Framed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로서 대부분 건물을 구성하는 철근 콘



▲백년관 화장실 벽면에서 발생한 균열

크리트 구조(Reinforced Concrete Structure)에 철골을 더해 보다 강한 구조를 갖는다. 하지만 김 과장의 말에 따르면 "이런 구조는 약간의 흔들림을 동반해 철근 콘크리트 구조보다 더 쉽게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며 "그렇지만 저층부가 다른 곳에 비해 약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러한 구조 차이와 더불어 건물 내에 설치된 다리도 균열에 영향을 미친다. 다리의 하중에 의해 특별히 다리와 가장 가까운 위치한 화장실에 균열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김 과장은 "다리가 건물에 확실히 고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다리에 인접한 화장실이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백년관은 이를 그대로 '백 년'을 내다보고 지었기 때문에 안전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며 "안전 문제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아도 된다"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앞으로의 계획

학생 기숙사와 백년관에서 발견된 균열들은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이 났다. 그렇지만 아직 학생들은 균열로 인해 위협을 느끼고 있다. 김도형(동남역·아랍어 14) 군은 "문제가 없다고 해도 균열을 보면 불안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라며 "미관상 문제로 인해서라도 처리해줬으면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기획건설팀 측은 "학교 측에서 모든 균열의 위치를 알아 처리하기는 어렵다"며 "학생들이 균열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사후 조치를 신청하면 처리해줄 수 있다"고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알려줄 것을 요구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행정전문대학원(야간)
2015학년도 전기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5학년도 전기 입시일정

구분	일반전형(Second Round)
원서접수	2014. 11. 24(월) ~ 12. 05(금)
고사장 발표	12. 18(목) 15:00
면접전형	12. 20(토) 09:30
합격자 발표	2015. 01. 05(월) 15:00
등록예치금 납부	2015. 01. 05(월)~01. 09(금)

2. 모집학과 및 전공

가. 공공감사·정책학과(공공정책, 공공행정) 나. 언론홍보영상학과(광고홍보, 신문방송)
다. 외교안보학과(외교안보, 북한)

3. 지원자격(특별전형 및 일반전형 공통)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졸업예정자
나.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4. 접수방법

- STEP 1 -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 출력물 및 기타 구비서류 교학처 제출
- * 우편, 방문 등의 방법으로 기한 내에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작성과 서류 제출을 모두 완료하여야 합니다.

5.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면접시험

- * 면접시험은 출석면접을 원칙으로 합니다.
- * 면접시험에 불참 시 불합격 처리됩니다.

6.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7. 기타사항

- 가. 장학금 특전
 - 공무원, 언론인, 군인 현직자 중 입학성적우수자, 직급별 차등 지급
 - 본교(사이버한국외대 포함) 출신 성적우수자(평점 3.5이상) 장학금 지급
- 나. 주말수업(토요일) 개설

8.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http://www.hufs.ac.kr/user/gspis> 및 모집요강 참조

9.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2팀(정치행정전문대학원)

TEL. 02-2173-2429, 3567 FAX. 02-2173-3358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이문동 270)

어제와 만나는 서울배움터의 오늘, 서울배움터 대동제 진행돼



▲서울배움터의 노어과가 대동제 월드뮤직페스티벌에서 러시아 전통 의상을 입고 전통 무용을 선보이고 있다.

10월 29일부터 31일, 서울배움터에서 '타입슬립 어제와 만난 오늘'이라는 기조로 대동제가 열렸다. 이 기조에 따라 3일 간 잔디광장에서는 과거 사진과 그와 비슷한 현재의 사진을 나란히 전시한 추억사진전 '과거, 오늘을 만나다'가 열렸다. 또한 사진을 찍어 지금을 남길 수 있도록 트리아트와 LED 조형물이 설치되기도 했다.

10월 30일 운동장에서 월드뮤직페스티벌과 외대문예창작한마당, 9000청춘파티가 열린 데 이어 31일에는 학생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 공연하는 홈스테이지 및 초대가수 공연이 열렸다. 또한 30일에는 개그맨 서경석 씨의 토크콘서트와 함께 책임음주 캠페인이 소개됐다. 강연 후 본지 기자와 만난 서경석 씨는 "어문학 전공자로서 실용언어 능력이 우수한 한국외대 학생들은 항상 부럽고 두려운 존재여서 꼭 한 번 만나고 싶었다"며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하길 바란다는 말을 전했다. 31일 오바마홀에서는 연극 안나라수마나라를 공연하기도 했다.

축제가 진행되는 동안 국제학사, 인문과학관 앞, 지하캠퍼스 입구, 도서관 앞 등 서울배움터 곳곳에는 각 단과대학과 동아리들의 개성 넘치는 부스가 열리기도 했다. 또한 29일부터 30일까지 나무계단에서는 버스킹 존을, 운동장에서는 서울배움터 내 각 과로 구성된 월드빌리지(World Village)를 만나볼 수 있었다. 월드빌리지에서 오레오 크레페와 수제소시지 크레페 등을 판매하고 있던 박재현(서양어·프랑스어 13) 프랑스어과 학생회장은 "특히 오레오 크레페가 인기"라며 "여러 나라의 문화나 음식을 보고 느끼는 자리가 됐으면 한다"고 바람을 말했다. 축제에 참가한 양희조(서양어·스페인어 14) 양은 대학생이 된 후 처음으로 축제에 참여한다며 "각 학과들이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자리여서 좋고, 여러 나라의 전통 문화를 보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동제는 예년보다도 늦게 열려 날씨가 많이 추웠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기도 했다. 박민준(동양어·터키어 14) 군은 "늦은 시기에 열려 축제인데도 사람이 많이 없는 것 같다"며 아쉬움을 전했다.

임정혁·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총장님, 질문 있습니다! 글로벌배움터 총장과의 대화 개최



▲약 80명의 학생들과 함께 총장과의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

지난 6일 글로벌배움터 공학관에서 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다. 서울배움터에 이어 글로벌배움터에서도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각 부처 처장단과 함께 약 80명의 학생이 참석했다. 김인철 총장은 학생들과 대화에 앞서 "우리학교의 발전은 글로벌배움터에 달려있다"며 "본·분교가 아닌 하나의 캠퍼스로 다함께 변화시키는 학교를 만들자"고 인사말을 전했다.

뒤이어 학생회 측의 대표질문이 있었다. 대표질문으로는 △이공계 발전을 위한 대책 △납자 구기숙사 리모델링 △교양강 공간배정 △교내 무선인터넷 환경 개선 △김흥배 설립자 동상 등에 대한 질문이 있었다. 이공계 발전 대책에 대해 총장과 처장단 측은 "언어와 공학기술적인 분야를 융복합시킨 인재를 배출 할 학부를 위해 회의를 시작했

다"고 답했으며 교내 무선인터넷 환경에 대해서는 "다가를 겨울방학에 무선인터넷 환경을 개선해 개강 시 좀 더 좋은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설립자 동상에 대해 "아직 친일 행적에 대해 확실시 된 사항이 아니다"며 "확실시 된다면 동상 옆에 설명글을 넣겠다"고 답했다.

이어 이날 참석한 학생들의 자유질문도 있었다. 국제학생회 측의 공간요구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공간 확보를 해줄 예정"이라고 답했으며, 국제스포츠레저학부의 실습 개선에 대해서도 "교수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등록금이 헛되지 쓰이지 않도록 질 높은 실습을 할 수 있게 개선 하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이 날 참석한 오진영(경상·경제 12)양은 "쉽게 만날 수 없었던 총장님과 처장단을 만나 학내 관련 사항에 대한 학생들의 이야기와 함께 학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들을 수 있어 좋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또 조국인(국제지역·프랑스 09)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늘 총장과의 대화가 향후 40년 외대 100년을 이끌어 가는데 중요한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며 "학생들의 건의사항들은 학교를 사랑하고 잘 이끌어가고자 하는 마음이니 학교 측에서 귀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김시홍 교수 이탈리아 공화국대통령으로부터 기사 훈장 수여



▲안젤로 조에 문화원장이 김시홍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있다.

지난 달 24일 서울배움터 교수회관 강연실에서 세계 이탈리아 언어 주간을 맞아 김시홍 이탈리아어과 교수가 이탈리아 공화국 대통령으로부터 카발리에레(기사훈장)를 수여받았다. 이탈리아 정부는 김시홍 교수가 한국과 이탈리아 정부 합동으로 개최하는 한국-이탈리아 포럼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양 국가의 입장을 조절한 공로와 많은 학술적 가치를 인정해 훈장을 수여했다.

이 행사에는 쥐세페 브론지니(Giuseppe Bronzini) 이탈리아 대법원 판사, 세르지오 메르쿠리(Sergio Mercuri) 주한 이탈리아 대사, 안젤로 조에(Angelo Gioe) 주한 이탈리아 문화원장,

최충희 서울배움터 부총장 및 처장단, 변해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 훈장 수여식은 세르지오 메르쿠리 대사와 안젤로 조에 문화원장의 축사 후 세르지오 메르쿠리 주한 이탈리아 대사가 김시홍 교수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에 김시홍 교수는 "이탈리아 대통령이 수여하는 훈장인 만큼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지금까지 공로를 인정하는 동시에 앞으로 더 많이 노력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 양국의 관계 증진을 위해 힘쓰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교수는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지금까지 침체됐던 한국-이탈리아 친선협회를 다시 활성화시키고, 이탈리아 정치·문화에 대해 더 연구해 책을 저술하려 한다"고 밝혔다.

훈장 수여식 이후에는 유럽시민권과 기본권 헌장에 대한 세미나가 이어졌다. 세미나는 쥐세페 브론지니 대법원장이 기본권 헌장에 대해 설명한 후 변해철 교수의 해설, 세미나에 참석한 학생의 질문으로 한 시간 가량 진행됐다. 쥐세페 브론지니 대법원 판사는 "이 자리를 만들어준 문화원장과 김시홍 교수에게 감사드린다"며 "기본권 헌장 또한 언어로 전해지는 것라는 점에서 다시 한 번 언어의 중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임정혁 기자 89ginpaldduk@hufs.ac.kr

2015학년도 전기 석사/박사/석·박사통합 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1. 2015학년도 전기 입시전형 일정

구분	원서접수	전형일시	합격자발표	등록기간(예치금)	비고
일반전형	2014.11.10(월)~11.14(금)	11.29(토) 10:00	12.18(목) 14:00	12.22(월)~12.26(금)	

2. 지원자격

가. 특별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학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0(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로 석사과정 총 평점 평균이 3.5(4.5만점 기준) 이상인 자

나. 일반전형

- 1) 석사 및 석·박사통합 :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2) 박사 : 국내·외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5년 2월 취득 예정인 자

※ 참고) 특별전형과 일반전형의 차이

- 지원자격상에 평점 평균 제한이 있는 점이 다르며 기타사항은 동일하거나 유사합니다.
- 특별전형은 지원자격상에 일정한 평점 평균 제한이 있으며, 일반전형은 평점 평균 제한없이 자유롭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시기적으로 특별전형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 일반전형을 실시합니다.

3. 접수방법

- STEP 1 - 대학원 홈페이지 인터넷 원서작성 및 접수
 - STEP 2 - 인터넷 접수 후 출력물 및 구비서류 제출(우편, 방문 등)
- ※ 반드시 접수기한 내에 인터넷 원서접수와 서류 제출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4. 전형방법 : 서류심사 및 기술시험(면접)

5. 전형장소 : 서울캠퍼스(자세한 고사장 및 고사실은 추후 공지)

6. 기타사항

- 가. 다양한 교내·외 장학금 혜택(HUFSan, 입학성적우수, 성적우수, 외국인유학생, 학과근로조교, 재외동포재단, 학생회임원, 교학처근로조교, 정부초청, 한국장학재단, 기타 기업체 및 단체 장학금 등)
 - 나. 본 대학원과 학점교류 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타 대학원에서 학점교류 가능
 - 다. 대학원생 국제저명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라. 대학원생 국내·외 학술지 논문게재 연구비 지원
 - 마. 우수박사학위논문 연구비 지원
 - 바. 전문연구요원 제도 운영
 - 사. 기타 분교 도서관 및 시설 이용
7.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원 홈페이지 www.hufs.ac.kr/gra 및 모집요강 참조
 8.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교학처 사무1팀(일반대학원)
TEL. 02-2173-2386 FAX. 02-2173-3369
(우)130-79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이문로 107

서양어대 학사제도에 학생들 의견 대폭 반영 학생들 불만 해소될 전망

2015학년도 서양어대학(이하 서대)의 학사제도에 학생들의 요구가 반영될 예정이다. 서대 학생회 산하기구인 학사제도대책위원회(이하 학대위)는 지난 10월 17일 서대 전체교수회의에 학생들이 느끼는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들을 담은 내용의 제안서를 제출했고 정식 안건으로 상정, 검토한 결과 이 제안서 중 일부 안건이 수용되기로 결정됐다.

먼저 서대의 2014학년도 신입생들은 문화, 문학, 지역학, 언어로 나뉜 4가지 영역의 공통교양과목에서 한 과목씩을 반드시 들어야 했다. 이러한 의무수강에 따라 신입생들은 과도한 교양 학점 취

득이나 자유로운 수업 선택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어 불만을 제기해왔다. 이러한 불만에 따라 학대위는 4가지 영역 중 2 영역에서의 1과목씩 수강을 의무화할 것을 제안했고 이 안이 받아들여졌다. 이에 강좌 수는 그대로나 분반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줄 예정이다. 또한 공통교양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담은 설문조사를 토대로 내년 수업 계획이나 수업별 난이도 조절에 반영하기로 결정했다.

그 외에도 모든 서대 신입생들이 1학년 1학기에 실용외국어 영역에서 실용영어만을 의무적으로 들어야했으나 과목 제한과 수강 시기 제한이 모두

없어졌다. 실용외국어 과목과 추후에 배정받은 전공어가 겹칠 경우 자신 학점으로 인정된다. 또한 각 학과는 엇학기 강좌, 통합과목을 설치하거나 3학년 1학기에 어학 과목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커리큘럼을 자율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또한 그동안 광역단위 학생들은 2학기에만 수강했던 신입생세미나가 1학기에도 열리게 됐다. 김상열 서양어대학장은 이에 대해 “학생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학교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개별면담을 통해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광역단위로 입학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학사제도에 학생들의 의견을 대폭 반

영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학사제도변경안 수용에 대해 지난 4일 사퇴한 학생회장의 직무 대행 중인 박지현(서양어·네덜란드어 13) 서대 부학생회장은 “이번 학사제도 변경으로 큰 틀에서는 학생들의 불만이 해결됐다고 본다”라고 이번 성과를 평가했다. 이어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고, 이번 변화가 15학번을 위해 준비하는 단계인만큼 앞으로도 정시생들이 느끼는 문제점들을 해결해나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외대에서 만나는 세계요리대전 세계 비정상들을 만족시킬 요리는?



▲요리대회에 참가한 Volim Te팀이 요리를 하고 있다.

지난 4일 글로벌배움터 후생복지관 식당에서 생활협동조합배 요리대회가 열렸다. 이 대회는 학생들이 선호하는 메뉴를 알기위해 직접 요리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매 학기 열리는 행사다. 이번 요리대회 주제는 ‘세계요리’였으며 참가자 전원에게 소정의 요리 재료비가 지급됐다. 1등, 2등, 3등 각각에게 CJ 20만원, 10만원 5만원 상품권이 수여됐다. 또한 1, 2등으로 뽑힌 요리는 학내식당 요리로 선정된다.

요리시간 40분, 심사위원 시식과 평가 20분으로 1시간여 동안 진행됐다.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이윤석 생협 이사장은 “음식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며 “참가자 모두 기량을 뽐내 주었으면 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번 대회는 예선전을 거쳐 총 7개의 팀이 참여했다. 요리 대결 결과 1위는 심사위원의 만장일치로 ‘군피미피(김우림·강경구)’의 소고기 덮밥이 선정됐다. 2위는 ‘간장과 친구들(라주연·이상철)’의 간장비빔국수가 차지했고, 3위는 ‘개구리식당(김지민)’의 치킨누들 스프, 브루스케타가 “독창적이고 재료와의 조화가 우수하다는 평을 받으며 차지했다.

1위를 차지한 군피미피 팀은 심사위원에게 “조리하기 편리해보였고 상품성이 높아 보인다”는 평을 받았다. 김우림(경상·경제 10)군은 “기대도 안했는데 1등을 해 기쁘다”며 “최대한 학생의 입장에서 좋아할 만한 메뉴를 생각해서 요리했다”고 전했다.

박윤진 수습기자·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하나의 다른 개성이 만나 화합을 학내 최초 현대 예술 전시 열려



▲교내 현대예술전시회에 전시된 작품이다.

지난 달 17일 서울배움터 역사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우리학교 최초의 교내 현대 예술 전시 ‘또 다른 화합 - An + Other = ONE(Individually but All Together)’ 개막 행사가 열렸다.

이번 행사는 우리학교 동유럽발칸연구소 정기 국제학술대회 연계프로그램으로서 2011년 문을 연 이래 세계의 역사와 문화 관련 특별 전시를 진행해 온 역사관과 공동으로 기획됐다. 아시아중동 부유학회와 함께 ‘분단을 넘어 화합으로(Unity Over Division)’라는 주제로 현대미술로 재해석됐다.

국제미술평론가협회 윤진섭 부회장은 “따로 또 같이(Individually but All Together)라는 부제가 암시하듯, 여기에는 정치·사회·종교적 갈등으로 인해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발칸반도의 역사와 운명이 암시돼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이이남, 이경호 등 다양한 한국 현대미술작가들과 중국 작가인 마오샤오춘(Miao Xiaochun), 부서지기 쉬우나 욕망으로 가득 찬 인간의 실존을 유화로 잘 표현한 우밍중(Wu Mingzhong)의 작품도 선보인다.

우리학교 역사관 박치완 역사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융합과 창의적인 소통의 의미를 저명한 현대 미술, 미디어 아트 작가 11명의 시각적 언어로 표현된 색다른 경험의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미술전 개최 소감을 밝혔다.

회화를 비롯하여 도예, 조각, 사진, 미디어 아트 등 미술의 전 분야를 망라한 이번 전시회는 역사관 3층 기획전시실에서 11월 14일까지 관람할 수 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제 2의 스티브 잡스를 키운다

서울배움터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 시행 예정

서울배움터에 인문계열 학생들을 위해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러한 교과과정의 개발은 통섭형 인재로 추구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결과다. 실제로 여러 대기업에서 인문학과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통섭형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을 세워, 인문계 전공자에게 소프트웨어 교육 및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학교는 다양한 인문학 분야의 학과를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언어와 지역학은 국내 최고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외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매년 각 나라마다 많은 지역전문가를 배출하고 있다. 각 국가에 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지역전문가들이 IT 전문지식을 갖춰 그 나라의 환경에 맞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면 보다 경쟁력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공계로 이종전공 하는 학생들 중 대다수가 수학·과학적 지식이 부족해 중도에 포기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은 불필요한 이공계 과목을 교과

과정에서 제외하고 문과학생들이 이해하기 쉽게 교과과정의 난이도를 조절할 계획이다.

현재 우리학교의 소프트웨어 관련 학과로는 컴퓨터 및 전자시스템공학부, 정보통신공학과, 산업경영공학과가 있다. IT 분야에 관심이 있고 어느 정도 소양을 갖춘 인문계 학생을 학과 별로 한두 명씩 뽑아, 매년 양 배움터 각각 40명 정도의 학생을 선발해 ‘융복합 소프트웨어 연계전공’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상원 정보통신공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컴퓨터 전공자는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경영학과 전공자는 컴퓨터 지식이 부족하다”며 “연계전공을 통해 두 가지를 모두 겸비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컴퓨터는 어떤 분야든 융합되면 상당히 유리하다”며 “모집을 인문계열 학생들에게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사회계 전체학생을 대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독일어과 창립 60주년 맞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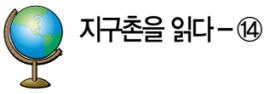
서울배움터 독일어과의 창립 60주년 기념식이 지난 달 31일 오후, 사이버관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행사는 동문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기념 예술제 및 홈커밍데이 형식으로 열렸다. 식은 1부 기념식, 저녁식사, 2부 공연 순으로 진행됐으며, 공연은 독일어과 원어 연극 동아리인 테아터(Theater)의 연극으로 채워졌다. 독일어과는 10월 27일부터 31일까지 5일 동안 ‘나킨온헤브스도어’, ‘타인의 삶’ 같은 독일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제를 개최하고, 프랑스어과의와 친선 축구 경기, 학회 공연들의 행사를 열고, 처음으로 기념집을 발간하며 60주년을 기념했다.

독일어과는 1954년 우리학교 개교와 동시에 독일어권 전문인 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 1983년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교육교류협정을 체결한 것이 우리학교 교환학생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것이고, 2013년까지 총 8개의 독일 대학과 협정을 맺어 매년 30명에 달하는 학생들을 파견하고 있다. 또한 매 학기 10여명의 인턴을 독일과 오스트리아, 스위스의 해외무역관에 파견하여 무역 실무와 현지 경험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학교 독일어과는 다른 대학의 독어독문과와는 달

리 원어민 교수님들이 많이 있어, 독일어를 배우고 실제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까지 우리 학교 독일어과를 졸업한 동문은 3680여명에 이르며, 졸업생들은 외교통상부와 코트라, 금융권과 대기업에서 일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미흡한 학과 교과 과정의 수정을 의논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독일어과 학과장 김형래 교수는 창설 이후 쓰여진 적 없던 독일학과의 역사를 찾아 기념집을 펴는 일이 의미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학금이나 발전기금이 많지 않아 행사 준비가 쉽지는 않았지만, 학과에 대해 되돌아켜 볼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또한 김판성(서양어·독일어 11) 독일어과 학생회장은 서양어대 광역학, 독일어과 일일호프 진행 등으로 비취봤을 때 학과가 현재 긍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인철 총장은 기념집을 통해 “국제적 전문지식을 함양한 인재를 양성해 온 독일어과의 60주년 맞이 100년 외대를 향해 나아가는데 큰 성장 축이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유다송 기자 89baquibullae@hufs.ac.kr



대만의 해바라기 운동



김유식
대만연구센터
책임연구원

지난 3월 18일 대만에서는 해바라기(太陽花)운동이라는 대규모 학생시위가 발생했다. 이번 시위는 대만사회에 아주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학생들이 국회의회실과 정부종합청사 건물까지 점령했다. 대만과 중국(이하 양안)이 맺은 서비스무역협정을 국민당이 야당인 민진당을 무시하고 단독 통과시키려 했고, 이에 대해 학생들이 반발한 것이다. 처음 민진당 의원들이 회의실을 점거하여 항의하는 것으로 시작했고, 일부 대학생들이 "밀실협약 저지행동선언"을 외치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운동을 벌였다. 이는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가 많은 학생들이 동조하며 국회 주변에 모여들었고 의사당을 점령하기에 이르렀다. 집회는 4월 6일까지 지속됐다. 경찰이 해산을 시도했으나 민진당 국회의원들로 인해 실패했고 입법원장(국회의장)의 중재 하에 4월 6일에 해산했다.

이 운동을 태양화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3월 19일에 이를 지지하는 사람이 자비로 1300여송이의 해바라기를 현장에 있는 학생들에게 보내면서 태양화(해바라기)학생운동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왜 이러한 운동이 벌어졌을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대만의 상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현재 대만 내에서 국민당과 민진당의 커다란 차이는 국가 정체성에 있다. 국민당은 기본적으로는 1911년 쑨원(孫文)선생의 중화민국을 이어오고 있고 스스로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민진당은 대만은 대만일 뿐 중국과는 별개이며 중화인민공화국과는 별개의 나라라고 하면서 대만독립을 당 현장에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 대만독립이라는 것은 더 이상 중국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만에서는 1990년대 민주화 과정 중 '민주화는 탈중국화'라는 사조가 점차 만연하고 있다. 하지만 이웃하고 있는 중국은 대만을 중국의 영토로 간주, 어떠한 탈 중국화의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고, 80년대 말 중국과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만국민들은 극단적인 독립의 지나 지나친 중국화 보다는 사실상 독립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충돌하지 않는 현상유지를 선호하고 있다.

이런 과정 속에서 1996년 직선제를 통하여 다시 총통(대통령)에 오른 리명후이(李登輝)는 국민당의 총통임에도 대만화를 강조하고 중국과의 차별을 내세웠고 산업공동화를 우려해 중국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는 정책을 펼쳤다. 하지만 21세기 이후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반면 대만경제는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민진당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갔다. 2008년 총통 선거 당시 국민당의 후보인 마잉지우(馬英九)는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경제발전을 이룩하겠다고 공약했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양안 공동시장의 개념을 제시했다. 총통선거에서 승리를 거둔 마잉지우는 공약 실천을 위하여 실천적 개념인 양안경제무역협력협약(이하 ECFA)의 체결을 중국 측에 제시했고 중국은 대만의 상황을 중국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이를 받아들였다. 그 결과 2010년 9월 양안은 ECFA를 체결했고 경제협력을 가속화했다.

문제는 대만의 상황이 국민당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데 있다. 대만의 경제상황은 그리 회복되지 않고 있다. ECFA를 체결한 2010년 한 해만 반짝 10%대의 성장을 기록했지만 그 이후는 다시 4% 이하의 경제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즉, ECFA의 경제적 효과가 현정부의 선전만큼 크지 않았던 것이다. 대만의 임금은 필자의 체험상은 20년 동안 오르지 않고 있다. 물가도 그리 오르지 않아서 실질소득이 크게 차이 나지는 않았지만 2010년대 들어 부동산은 급격히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물가지수도 계속 상승하고 있다. 반면 일반국민의 소득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으로 현재 대만 젊은이들은 22K세대라는 자조적인 호칭도 등장하고 있다. 22K는 월2만2천원(우리 돈 약 80만원)이라는 뜻이다. 낮은 임금, 높은 부동산 가격과 오르는 물가 속에서 젊은이들의 미래에 대한 불안과 현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증가했다.

이런 상황 속에 작년 9월에 체결된 양안서비스무역협정은 대만 젊은이들의 불안을 가중시켰다. 어차피 제조업은 이미 중국과는 경

쟁상대가 안 되는 상황에서 서비스업마저 개방하게 된다면 대만의 청년실업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터져나왔다. 게다가 출판업에 대한 개방은 대만의 언론 산업을 중국이 조정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합쳐지면서 젊은이들의 반대목소리가 커졌고 야당세력들은 이를 증폭시켜 국민당을 공격했다.

하지만 이번 학생운동에 대한 부정적인 면도 무시할 수 없다. 먼저, 이번 학생운동이 국민당의 무리한 협정통과에 대하여 반대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은 이 서비스무역협정에 대한 반대운동이다. 학생들이 이 서비스협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없이 일부 정치인의 유언비어에 무조건적인 신뢰를 보이며 맹목적으로 반대한다는 것이다. 게다가 입법원의 사당과 행정원을 점령한 것은 헌정기관에 대한 점령으로 민주주의를 외치는 학생들이 민주주의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흔드는 행동을 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성은 전혀 없다는 점이다. 학생들을 지지하는 지식인들과 문화인들도 이런 행동에 대한 비판은 전혀 없이 무조건적인 지지만을 했던 것도 스스로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다.

대만은 이제 새로운 군중민주주의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군중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단이 지나치게 상업화되고 이데올로기에 오염 돼 정확한 정보가 전해지지 않은 채 대중매체의 특징에 따라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발맞추지 못하고 국민과의 소통에 소극적인 정부와 이에 편승하거나 악용하는 정치세력들도 군중민주주의의 폐해를 두드러지게 하는 요소다.

기존의 정치세력과 체제가 현재의 문제를 해결해주거나 최소한의 희망을 주지 못한다면 새로운 희망을 갈망하는 군중들의 움직임은 계속 될 것이다.

중국정부도 대만의 이러한 흐름에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중국이 얘기하듯 대만독립을 외치거나 사실상 독립상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소수가 아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는 절대 다수가 되고 있고 이는 일부 세력의 준동이나 외세의 개입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 대만 사람들 스스로의 인식변화로 인한 것이다. 중국정부는 이러한 점을 정확히 인식하여 대만사람들의 인식을 어느 정도 존중하는 선에서 양안관계를 펼쳐가야 한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

여기도 유럽이었던가 발칸반도 불가리아

발칸반도는 많은 역사적 사건들의 출발점임에도 아직 대다수에게는 익숙지 않다. 사실 제1차 세계대전의 시발점인 세르비아도 이곳에 속한다. 대학생에게 유럽여행이라고 하면 대부분 서유럽을 말한다. 요즘엔 헝가리나 체코까지 동유럽이라며 반경이 커졌지만 지리적으로 동유럽은 발칸반도다. 헝가리 친구에게 물어보면 자신들은 중앙 유럽이라며 손사래를 치니 이곳이야말로 명실상부 동유럽이라 하겠다. 참 많은 일이 일어난 그 곳. 터키에 이어 발칸반도를 꾸물꾸물 이리저리 헤엄쳐 왔다.

터키를 시계방향으로 한 바퀴 돌고 터키인 친구의 배웅을 받으며 북쪽으로 머리를 돌렸다. 이스탄불은 크게 유럽사이드(Europe-side)와 아시아사이드(Asia-side)로 나뉘는데, 발칸반도는 서쪽의 유럽사이드와 국경을 맞닿은 지점부터 시작된다. 불가리아에 발을 들이기 직전까지도 어디 있는지 잘 몰랐는데, 그리스 바로 위쪽에 있는 세 나라 중 하나. 등잔 밑에 관심조차 없었던 것이다. 서양에서 중국과 일본은 아는데, 한국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것과 비슷하다.

불가리아는 3대 도시를 중심으로 둘러보면 적당하다. 흑해와 맞닿은 유러피안의 휴양지, 부르가스라는 해안도시도 많이 가지만 필자는 지나쳤다. 요구르트로 유명한 나라의 수도는 소피아이며 한참 서쪽에 있다. 역사적으로 남쪽의 플로브디프와 북쪽의 벨리코투르노보가 오랫동안 중심도시였지만 혁명 이후 러시아 공산주의 탈피 등 여러 이유로 서쪽으로 이전했다.

발칸반도는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이해해야 여행이 더 즐거운데 불가리아도 그렇다. 터키와 가까워 오스만 제국시절 500년 동안 지배를 받고, 독립시켜준 소련에 의해 다시 공산주의의 교두보로 전락했다. 근대에 와서 영토를 회복하려 하니 여기저기서 독립한다고 땅을 갈라먹고, 편까지 잘못 들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국에 속했다. 참 다사다난한 길을 걸어온 나라다. 덕분에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니 여행자에게는 흥미롭다. 소피아에 이어 규모가 두 번째인 플로브디프에는 가톨릭, 기독교, 불가리아 정교, 이슬람 모스크 심지어 절까지 있다. 그것도 광장 하나 주변으로 빙 둘러서 말이다. 옆치락 뒤치락, 치열했던 도시의 역사를 한 눈에 바라볼 수 있다.

불가리아 노천카페에는 한량처럼 낮부터 노니는 사람이 많다. 현지 친구에게 물어보니 교직원 임금이 한 달에 300유로일 정도로 EU국가 중에 임금은 거의 최저수준이었다. 교육비가 저렴해 한국을 비롯해 터키 등에서 유학을 오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청년인구는 다 서유럽으로 일하러 나가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은 하루 벌며 근근이 살아간다. 정부에는 공산주의 시절 관료기 혁명 후에도 그대로 존재했고 종교, 정치, 언론이 삼위일체로 편먹고 부패로 찌들어 사람들의 피로가 극에 달했다. 돈이 생기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데 쓰는 편이다. 덕분에 평일 밤에도 클럽이나 바에서 수준 높은 음악공연을 볼 수 있었다.

나침술 (상경·경제 09)

한국외국어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공과대학 주최

제8회 SCIENCE and ENGINEERING FORUM

대상	한국외국어대학교 재학생
행사일시	2014년 11월 11일부터 11월 13일까지
행사장소	한국외국어대학교 내 백년관 CONFERENCE HALL
행사내용	이공계 학생들의 학술 경진 대회 E-SPORTS <FIFA ONLINE> 명사 초청 강의

참가방법	1. 부스에서 학술제 참가팀의 설명을 듣는다.
	2. 부스에서 찍어주는 도장을 받는다.
	3. 모든 도장을 받은후 메인부스에서 확인을 받는다.
	4. 참가 사은품과 추첨권을 받는다.

기타 사항
추첨은 행사 마지막 날(13일)
17시 30분 실시

문의
TEL1)010-5177-1772 공과대학 홍보국장 김지훈
TEL2)010-5115-9319 자연과학대학 홍보국장 장소희
E-MAIL) stsucess@gmail.com

구조조정 바람 분 사범대학

변화의 바람인가, 시장논리의 바람인가?

대다수의 학생들이 막바지 중간고사 준비에 바빴을 지난 10월 22일, 사범대학(이하 사범대)에는 구조조정의 바람이 불었다. 서울배움터를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사범대 구조조정은 11월 3일 열린 우리학교 이사회에서 5과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결론이 났다. 이에 본지에서는 사범대를 둘러싼 구조조정의 시작과 11월 3일 이사회 결정까지의 과정은 물론 이를 둘러싼 논점,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과제들까지 알아봤다.

◆사범대학 구조조정, 10월 22일부터 11월 3일까지의 숨겨진 질주

사범대의 구조조정이 본격 공론화된 것은 10월 22일이다. 학교 측은 사범대에 두 가지 선택권을 줬다. 기존의 독일어교육과와 프랑스어교육과, 신설될 중국어교육과를 묶어 제2외국어교육학부라는 이름의 학부 체제로 가거나, 사범대 내 기존 과의 인원을 조정해 중국어교육과에 20명의 인원을 배정하고 기존 4개의 과에 중국어교육과를 합친 5과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었다. 이 안이 사범대 학생 측에 전해지자, 사범대 학생 대표자들이 이뤄진 운영위원회는 과 체제를 지키기 위해 각 과의 인원을 줄여 중국어교육과에 20명의 인원을 배정할 것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10월 23일 한국어교육과의 학생 대표자로 구성된 확대운영위원회는 한국어교육과의 정원 30명 중 5명을 줄여 이 인원을 중국어교육과에 내주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사범대 학생대표자회의는 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각 과에서 5명씩 감축해 중국어교육과 정원을 20명으로 충족시켜줄 것을 결의했다. 학부제 결정 시 제시한 중국어교육과 인원 15명에 영어교육과, 독일어교육과, 프랑스어교육과의 정원 5명씩이 포함돼 있었기에 남은 것은 한국어교육과의 결정이었다.

24일 아침 8시 30분에는 5과 체제 유지, 정원이 감축된 4과에 대한 학사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학사제도위원회 발족, 중국어교육과의 교수진과 커리큘럼을 미리 공개할 것을 포함하는 사범대 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안을 수용할 것을 요구하는 피켓팅이 진행됐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된 한국어교육과 교수회의에서는 인원 5명 감축을 결정했다. 이렇듯 사범대 교수진과 학생들이 학교 측이 제시했던 안 중 각 과에서 5명씩 줄여 중국어교육과의 입학 정원을 20명으로 하고 학과 체제를 유지하는 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오후 4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있었던 교무위원회에서는 다양한 논의와 교무위원들의 투표 끝에 제3의 안이 결정됐다. 영어교육과에서 2명, 한국어교육과에서 1명, 프랑스어교육과와 독일어교육과에서 각각 7명씩 줄여 중국어교육과가 17명을 입학 정원으로 하는 안이었다.

27일과 29일에는 사범대 학생들 사이에서 학교 측이 학부제 이후로 제안했던 제2외국어계열제에 대한 입장이 논의되기도 했다. 사범대 학생 대표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처음에 계열제 또한 학생들과 논의할 적지 않다는 이유로 반대했으나, 29일 학과 체제가 유지된다는 조건 아래 계열제 찬성으로 돌아섰다.

최종 결정권을 가진 이사회에서는 11월 3일 앞서 교무위원회가 결정한 정원 감축안을 통과시켰다. 결국 5과 체제로 유지할 것으로 정해지면서, 2016학년도부터 사범대는 영어교육과 38명, 프랑스어교육과와 독일어교육과 각각 18명, 한국어교육과 29명, 중국어교육과 17명을 입학정원으로

다섯 과가 공존하게 됐다.

◆결정은 됐지만 여전히 입장 차는 뚜렷

학교 측에 따르면 사범대학 구조조정이 처음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4월 말이다. 사범대학은 교원을 양성하고 배출한다는 특정 목적을 가진 목적대학이다. 그러나 이런 목적에 맞지 않게 독일어교육과와 프랑스어교육과는 지난 10년 동안 임용고시를 통한 교원 충원이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문제가 됐다. 학교 측은 이에 대해 “교육 환경이 변하면 학교도 이에 맞춰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사범대의 전체 정원 120명 내에서 학과 별 수요에 따라 인원을 조정하거나 필요하면 학과를 새로 만들고, 상황이 바뀌면 다시 조정하는 등 유연한 운영이 기본적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히 중국어교육과는 외국어 특성화 대학이라는 우리학교의 장점과 특성을 살리면서도, 사회적으로 수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신설이 결정됐다.

하지만 신형욱 사범대학장은 이번 구조조정에 대해 “사범대학의 학문적인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문제가 된 독일어교육과와 프랑스어교육과의 경우 임용고시를 통한 교원 임용은 없었지만 교육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졸업생이 많다. 비록 목적과는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는 다른 분야에서의 사회적 인재 또한 양성해왔다. 이에 더해 신형욱 사범대학장은 언어를 전공하는 다른 과와는 달리 사범대는 외국어교수법이라는 전문적인 학문을 가르치는 것으로 특화된 단과대학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사범대 발전방안에 기초한 체계적 미래 비전 제시보다는 특정 학과를 피상적으로만 판단한 조치”라고 말했다.

1.1. 유새롬(사범·프고 12) 사범대 학생회장도 “학생들 사이에서는 대학이 학문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곳인데 시장 논리를 통해 사회의 흐름을 타는 구조조정을 했다는 원론적인 불만도 많았다”고 전했다. 또한 “지금은 프랑스어교육과와 독일어교육과가 문제지만, 임용고시를 통한 교원 충원만 놓고 보면 계속 교원 수요가 줄어들 것이기에 언제 영어교육과와 한국어교육과도 구조조정의 대상이 될지 모른다”라고도 말했다. 이러한 의견에 대해 학교 측은 “사회적 수요가 없다고 줄이는 것이 정당한지는 충분히 문제 제기가 가능하다”면서도 “다만 교육 환경의 변화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환경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학생들, 특히 앞으로 입학할 학생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외에도 구조조정 과정에서 논란이 된 것은 학교가 22일 처음으로 제시했던 학부제다. 제2외국어교육학부로 갈 경우, 프랑스어교육과와 독일어교육과는 과가 아닌 전공 체제로 운영되기에 사실상의 폐과 조치라는 것이다. 학부제를 제안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20명 이하일 경우 학과 체제로 운영하는 것이 어렵고, 학생들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줄 수 있기에 학부제를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유새롬 사범대 학생회장은 “제2외국어교육학부로 갈 경우 프랑스어교육과와 독일어교육과는 과가 아닌 전공 체제로 운영되며, 전공은 과보다 없애기 쉽기에 사실상의 폐과 조치”라며 “학부제와 정원 조정 사이에서 학생들이 학과 체제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24일 교무위원회에서 20명 이하의 정원에도 학과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학교 측은 학과의 독립성이 약해진다는 측면에서 이를 원하지 않은 사범대학 학과들의 의견을 존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범대 학생들은 이번 구조조정을 두고 일방적인 결정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신형욱 사범대학장은 “1학기 말에 처음 구조조정에 관한 안을 들었을 때 현장에 있는 사범대 교수들의 의견은 반영되지도 않았다”라고 밝혔다. 추후 사범대 교수들과 논의 과정을 거쳤지만 학교가 구조조정을 시작할 때부터 교수들의 의견을 들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새롬 사범대 학생회장 또한 “만약 충분한 논의를 거쳤고 기존 과의 피해가 적었다면 중국어교육과 신설 자체에는 학생들이 이 정도로 반대하지 않았을 수 있다”고 말했다.

◆5과 체제로 일단락, 하지만 과제는 남아

이번 달 3일 이사회를 통해 최종 결정된 중국어교육과 신설은 교육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교육부가 학과 신설을 승인하면 2016년도 신입생들을 맞이하기 위해 커리큘럼 구성 및 교수 확충 등 본격적인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승인 여부는 2주에서 3주 후 결정된다. 학과가 신설될 경우 2016학년도 신입생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된다. 학과 신설을 교육부가 승인할지와, 승인이 될 경우 중국어교육과의 청사진을 어떻게 그려 나갈지가 주요 과제로 보인다. 만약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 사범대 구조조정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확률이 높아진다. 한편 유새롬 사범대 학생회장은 “앞으로 2~3주 시간이 남은 만큼 사범대 학생회 내에 학사제도위원회를 발족해 중국어교육과가 승인되지 않을 경우의 대책을 논의해나갈 것”이라며 “특히 수업권 등에서 기존 학과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추후 계획을 밝혔다.

임수진 기자 87curious@hufs.ac.kr

10월 22일 - 사범대 구조조정 본격 공론화
학교 : 독일어교육과+프랑스어교육과+중국어교육과를 합쳐 제2외국어교육학부 신설
기존 과의 인원을 조정해 중국어교육과에 20명 배정
사범대 학생회 : 운영위원회 열어 학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각 과의 인원을 줄일 것 결정

10월 23일
한국어교육과 학생들로 이뤄진 확대운영위원회 : 한국어교육과 정원 5명 감축 의결

10월 24일
오전 8시 30분 : 사범대학생대표자회의의 결의안 수용을 요구하는 학생들 피켓팅
오전 11시~오후 3시 : 한국어교육과 교수회의에서 한국어교육과 정원 감축 결정
오후 4시 30분~오후 7시 : 교무위원회에서 영어교육과 2명, 한국어교육과 1명, 독일어교육과와 프랑스어교육과 7명씩 감축 결정

11월 3일
이사회 : 교무위원회 결정안 수용, 입학정원을 영어교육과 38명, 프랑스어교육과와 독일어교육과 각각 18명, 한국어교육과 29명, 중국어교육과 17명으로 결정하고 중국어교육과 신설 및 5과 체제 유지 결정.

외대앞역 개선 사업 시작을 알리다

세계 주요 대학 랜드마크는?

외대앞역은 1974년 8월 15일 1호선이 개통되면서 개통 당시 역명은 회경역이었다. 그 뒤 1996년 1월 1일 우리학교의 이름을 딴 현재의 외대앞역으로 변경됐다. 외대앞역은 그 역사와 함께 지하철로 통학하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 모두가 이용하는 역이다. 이런 외대앞역을 우리학교의 랜드마크로 발돋움 하려는 움직임을 시작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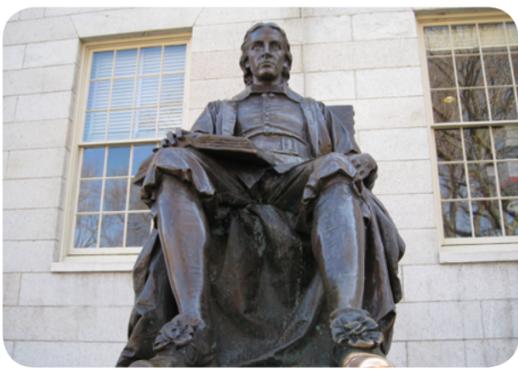
랜드마크란 어떤 지역을 홍보하기 위해 내세우는 유명한 건물이나 문화재, 사물 등을 말한다. 외대앞역을 우리학교의 랜드마크로 만들기 위해 학교 측은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외대앞역에 들어서면 '외대의 이미지'가 떠오르게 할 예정이다. 현재 코레일 측과 협의를 통해 계약을 맺은 상태다. 전략홍보팀 황순규 팀장은 "다음해 봄학기 개강까지 외대

앞역 앞을 홍보관으로 만들어 우리학교를 상징하는 콘텐츠를 넣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우리학교 전용서체도 완성됐다. 바탕체, 굴림체와 같이 우리학교 홈페이지에서 다운을 받으면 한글에서 서체 적용을 통해 '한국외국어체'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우리학교 전용서체 배포와 외대앞역 랜드마크 만들기 사업을 알리며 세계 여러 유명 대학의 상징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했다.

김다정 기자 88daisy@hufs.ac.kr



존 하버드 동상
미국 하버드대학교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대학이며 아이비리그에 속하는 하버드 대학의 상징물은 존 하버드의 동상이다. 18~19세기에 세워진 유명 건축물들이 모여 있는 곳인 하버드 야드에 있으며 죽기 전 전 재산과 장서를 기증한 존 하버드를 기념하는 동상이다.

존 하버드 동상에 관련해서 내려오는 세 가지 이야기가 있다. 하버드 대학은 하버드가 세운 것이 아닌 도서관만 기부했을 뿐이라는 것과 동상은 존 하버드 본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동상에 쓰여진 것과는 다르게 하버드 대학은 1638년이 아닌 1636년에 설립되었다는 것이다.

이 동상이 유명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 동상의 발끝을 보면 알 수 있다. 하버드의 왼발을 만지면 자신이나 자손이 미래에 하버드를 다닌다는 전설 때문에 동상의 왼발은 노랗게 닳아있다.



도서관
중국 북경대학

중국의 수도 베이징에 있는 중국 최초 국립대학교인 북경대학의 대표 상징물은 도서관이다. 도서관은 어느 대학이나 가지고 있는 건물이지만 북경대의 도서관은 그 스케일부터 다르다. 홍콩 최고의 자산가인 리자칭의 투자로 신축한 이래 아시아 대학의 도서관 중 가장 많은 양의 책을 보유하고 있으며 그 수는 800만권에 달한다. 이 중 20만권은 5세기부터 18세기까지의 국보급 고적들도 포함되어 있어 중국 학계의 자존심과도 같은 곳이다.

중국의 유명한 정치가인 마오쩌둥이 북경대학 도서관에서 사서보조로 근무했다. 그는 당시 북경대학교의 수업을 마음대로 듣고, 도서관에 있는 수많은 도서를 읽었다.



붉은문 아까몬
일본 도쿄대학

일본 도쿄에 위치하고 있는 도쿄대학의 대표 상징물은 아까몬이라고 불리는 붉은 문이다. 이 문은 많은 사람들이 도쿄대학의 정문이라고 알고 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며 도쿄대학의 정문은 따로 있다. 아까몬은 1827년에 건립되었으며 이 곳은 일본국보로 지정됐다. 일본 최고 명문대인 도쿄대학에 입학하고자 하는 많은 학생들이 이 곳을 지나가면 합격한다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다.

카팩스타워
영국 옥스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은 영국 옥스퍼드 시내 곳곳에 40여개의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징물은 카팩스타워(Carfax Tower)다. 13세기에 지어진 세인트마틴 교회의 일부였지만 19세기 도로 확장이 되면서 교회를 없애고 남겨놓은 탑이다. 타워에 설치된 시계는 매시 15분에 울린다. 이 곳이 유명한 이유는 타워 꼭대기에 올라가면 옥스퍼드 대학 전경과 옥스퍼드 시내를 한 눈에 내려다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세이더타워
미국 UC버클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는 미국 중부 교육 도시 버클리에 있는 주립 종합대학교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교는 모두 UC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 대학의 상징은 대학 중심부의 위치하고 있는 세이더타워다.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시계탑으로 종탑이다.

세이더타워는 단순히 종을 울리는 것이 아닌 61개의 종이 설치되어 있어 음악연주까지 할 수 있다. 매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 외에도 하루에 세 번 연주한다. 지난 해 8월 15일에는 우리나라 애국가를 연주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아까몬 http://otwojob.com/talent/pop_or.php?dc=5915
도서관 북경대 도서관 홈페이지
세이더타워 <http://blog.naver.com/riedip/100196101169>
존 하버드 동상 <http://wassupdule.tistory.com/79>
카팩스타워 <http://jchatter.blogspot.kr/2012/03/carfax-tower.html>

경력개발센터에서 듣는 우리학교 이공계·자연계 취업이야기

글로벌배움터
정용호 경력개발센터 팀장

최근 경력개발센터 ‘찾아가는 상담서비스’를 진행하며 공학관 로비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공대생이 상담 부스를 쳐다보며 하는 말이 컷가에 울려 퍼졌다. “취업상담서비스를 해주는 행사네. 뭐 난 공대생이라 취업 잘 될 거니까 상담 안 받아도 괜찮겠지?”

◆사회의 이공계열 우대현상

이 학생의 말처럼, 취업시장에서 이공계열 우대현상이 뚜렷하다. 일반적으로 인문계열 학생들의 일자리라곤 여겨졌던 금융권 분야에도 요즘에는 이공계열 학생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영업, 기획, 경영지원 분야에서도 이공계 학생들에 대한 인력 수급을 확대하고 있다. 최근에 발표한 삼성그룹 인사채용 정책 변화에서도 이공계열에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SSAT(삼성그룹 인적성 시험)과 면접전형으로 이루어졌던 방식에서 직무적합성평가와 창의성 면접을 도입한 것은 갈수록 급변하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 분야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모든 전자 기기가 서로 연결되는 사회가 도래하면서 ‘시험형인재’가 아니라 정보통신기술 전문 인재가 절실해졌다. 이에 따라 갈수록 인문계 출신 구직자들은 삼성에 입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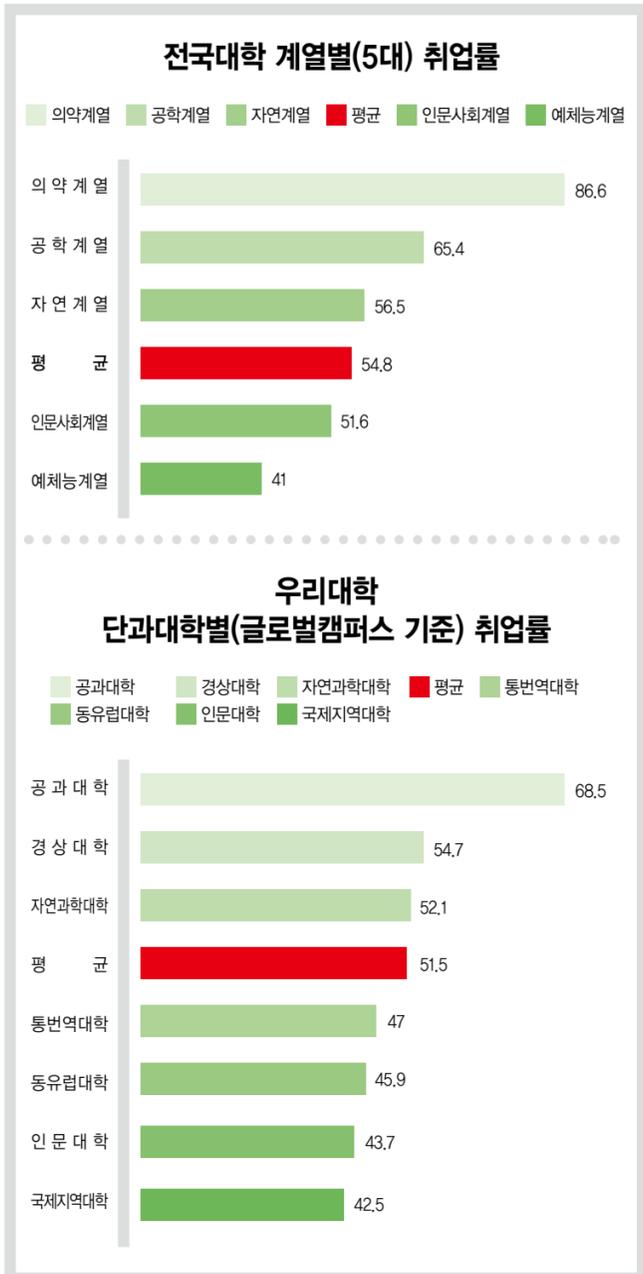
이처럼 이공계 인재를 선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제조업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세계 경기 침체 영향으로 국내 경기가 뚜렷한 저성장 기조로 변화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각 기업들은 채용규모 자체를 줄이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기업은 관리형 인재로 대표되는 인문계열 학생보다는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이공계 인재를 뽑으려고 한다.

우리 대학의 경우에도 지난 2년간의 취업률 현황을 살펴보면 공과대학의 경우 2013년도 71.0%, 2014년도 68.5%(6월1일자 건보 DB 기준)의 높은 취업률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이 수치는 글로벌배움터 전체 평균인 51.5%(2014년도 기준)를 훨씬 뛰어넘으며, 인문대학(43.7%)과 어문계열대학(45.1%)이 취업시장에서 고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 더불어서 공과대학 졸업생은 취업의 질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유지취업률(대학 졸업자가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도 취업한 직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조사한 취업률 지표)도 87.5%(전체 평균 80.4%, 2013년도 기준)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우리대학에서도 이런 취업시장에서의 이공계열 선호현상을 파악해, 사회수요에 맞는 인력수급체계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즉 공과대학의 인력을 확대하거나 공대학생들의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수 있는 학문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이공계열을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라 해도, 공대 졸업과 동시에 모두가 취업이 되는 것은 아니다. 소위 말하는 취업감 패인 “전화기”(전자·화학·기계공학) 전공이 우리 학교 공대에(전



자공학 제외)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공대 학생의 경우에는 전국의 타 대학 공대생들과의 전공(학과)싸움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쟁적 상황에서 취업가능성과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저학년 때부터 전공 학업에 충실하면서 자신의 진로를 우선적으로 설정하고 그에 맞는 취업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본인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아낼 수 있다. 다만, 자신의 전공에 대한 비전과 관심이 낮은 학생의 경우에는 이공계열 우대의 사회분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영업(기술영업,

경영지원 등의 분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사회에서 요구하고 있는 융복합 인재라는 것은 이공계열을 기반으로 한 인문학적 소양을 함양한 인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공에 대한 취약점은 인문계열 업무 분야를 전략적 선택해 극복해 나갈 수 있다.

◆다양한 외국어 접할 수 있는 우리학교의 장점 적극적으로 이용해

우리대학의 경우 외국어 전문교육기관이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는데, 이공계열 전공 학생이 외국어와 전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는다면 최근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융복합 인재상에 적합한 전문인으로서 다른 대학출신자들과는 차별화될 수 있는 명품 인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학교 이공계 학생들은?

우리학교 이공계열 재학생들은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부스를 쳐다보며 말을 하는 공대생처럼, 취업현장에서의 경쟁적 상황에 대해 다소 느긋한 마음인 듯하다. 경력개발센터에서 운영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에서 이·공대생을 찾아보기 쉽지 않고, 상담을 받으러 오는 학생들 대다수가 진로에 대한 설정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졸업할 때가 돼서야 취업준비를 시작하는 모습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물론 이공계 학생들이 우리학교 전체 재학생 정원에서 소수를 차지한다고 해도, 이공계열 학생을 위한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열었을 때 모집 인원이 반도 차지 않는 현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우리학교 자연계열 학생들의 취업률은?

자연과학대학의 경우 최근 3년간 42.5% → 50.0% → 52.1%로 매년 지속적으로 취업률이 상승하고 있다. 순수학문 분야로 분류되고 있는 자연계열이지만, 어문계열대학이나 인문대학에 비해 취업률이 조금씩 상승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자연과학대학 수학과 학생이 최근 경력개발센터에 상담을 받으러 온 사례가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은행권 공채에 무려 3군데 합격을 받아놓은 상태였는데, 취업성공 이유를 물어보니 본인이 저학년 때부터 경력개발센터를 찾아와서 진로를 금융권으로 미리 설정해 놓고 그에 따른 준비를 충실히 해왔다는 것이다. 적절한 준비와 이공계열에 대한 사회적 수요의 흐름에 맞춘 성공사례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연과학대학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듯하다.

◆글로벌배움터 경력개발센터의 역할

경력개발센터에서는 생생한 채용정보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제공과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다양한 취업지원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취업 정보를 획득할 때 많은 학생들이 취업한 선배들로부터 정보를 우선적으로 취득하고 있는데, 실제로 선배들의 정보와 본인이 취해야 할 정보들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렇지만 경력개발센터에서 제공하는 취업정보들을 활용하면 보다 객관적으로 취업 시장에 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취업컨설팅회사나 외부취업 전문기관으로 부터 비용을 지불하고 참여해야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무료로 활용할 수 있으니 비용 절약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의 취업을 위해 언제나 응원하고 있는 행정부서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 활용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최소영 기자 87artis@hufs.ac.kr

5분심포 임정혁 기자 언(음)빌리버블 유다송 기자

또 한 잔 했나?

이번에 소개할 곡은 밴드 익스(EX)의 ‘잘 부탁 드립니다’라는 곡이다. 곡이 발표된 때는 2005년 대학가요제로, ‘스무 살 이상이면 다 아는 노래’라고 할 만큼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시간이 적잖이 흘렀지만 얼마 전 이 노래가 처음 발표될 때의 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라 엄청난 재생 횟수를 기록했다. 무대를 보는 순간 가장 먼저 들었던 생각은 ‘살마 음주방송?’이었다. 마이크를 들고 있는 이의 행동 하나하나가 분명 취한 사람이었다. 이 노래는 ‘안녕하세요’로 시작해 ‘잘 부탁드립니다’로 끝나는 한 여자의 자기소개다. 그런데 그 내용이 정상이 아니다. 안녕하세요를 외치고 난 후 자기 이름을 말할 생각은 않고, ‘시원해 기분이 좋다고 말하는가 하면 ‘나 예뻐요?’를 묻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뒤죽박죽이다. 이 여자의 사연을 듣자 하니 어딘가 중요한 자리에서 긴장해 헛소리만 하고 속상해서 한 잔 했단다. 한 잔 하고나니 꼭 따귀 때리는 듯 불던 찬 바람이 시원해지고, 정신이 알팔팔해지는 것이 기분이 좋단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한 번의 실수쯤은 눈감아 줄 수 없나요’라는 후렴의 반복은 필름 끊긴 사람의 푸념으로 들린다. 마지막 대사인 ‘It’s a beautiful day’가 소설 ‘운수 좋은 날’이 생각나게 하는 이유는 왜일까.

그녀가 말한 ‘중요한 자리’는 어디였을까? 꼭 들어가고 싶던 기업의 입사 면접? 열심히 준비한 조별 발표 자리? 아니면 정말 좋아하던 남자 앞? 과연 어디였기에 이렇게나 속상해 하는 것일까? 어느 곳이든 중요하게 생각했던 자리에서 실수했다면 누구라도 한 잔 하고 싶을 것이다. 혹시 그 상황이 당신에게도 일어나지는 않았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더 울고 싶진 않은가? 그냥 다 내려놓고 취해버리고 싶은가? 그렇다면 이 노래를 들이키고 마음껏 취해라. 우리 대신 취해주는 것이 이 곡의 역할이니까. 대신에 모두 포기하지는 말자. 취하는 건 익스에게 맡기고 우리는 다시 힘내자. 졸업한 선배를 인터뷰하던 중 선배가 해준 말이 있다. “힘들지? 다 힘들어. 못하겠으면 화내. 욕하고, 할 만큼 힘들어 하고, 그리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자!” 많이 힘들거나? 그럼 같이 힘들어하자. 그리고 조금 이따 다시 견자.



코리안 할리우드 데이?



▲ 할리우드 데이 분장을 한 연예인들의 모습

필자가 중학교에 다니던 시절 이맘때 겪은 이상한 일이 있었다. 누군가 집 문을 두드려 열어봤더니 초등학교 저학년 쯤으로 보이는 여자아이 세 명이 당돌하게 ‘사탕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다. 누가 나에게 사탕을 맡겨놓았던가 생각하는 잠시 동안 정적이 흘렀다. 아이들이 오늘은 할리우드라고 말할 때까지 나는 사탕을 구걸하는 이유를 몰랐다. 이 일이 있었던 당시, 이 이야기를 하면 희한한 일이라 모두에게 공감을 얻을 만큼 할리우는 생소했다. 그런데 최근 우리나라에서 할리우드를 맞이 높이 공원이며 클럽이며 할리우드를 테마로 한 행사가 우후죽순 열렸다. 해괴한 분장을 하고 거리를 누비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다. 할리우드 분장을 위한 재료를 파는 곳도 늘어 할리우드 관련 용품을 쉽게 구할 수도 있고, 개인 파티까지 열리는 모양을 보며 젊은이들이 어떤 날에 저렇게 적극적으로 있던 때가 있었던가 싶다. ‘년 할리우인데 뭐해?’처럼, 마치 할리우이면 당연히 기념해야 한다는 것 같이 들리는 말도 곳곳에서 들려온다. 할리우드가 작 몇 년 사이에 원래 있던 문화처럼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할리우는 악운을 쫓기 위한 미국의 문화다. 동짓날 팔죽도 먹지 않은 내가 무슨 할리우드가 싫다가도, 너무 빠른 사람들의 적응과 변화에 외국문화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도태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든다. 사탕 달라는 말이 동냥 구걸과 다를 것 없이 들릴, 할리우드 데이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들만의 문화일 뿐인데. 사람들은 재미를 항상 추구한다. 정적인 우리나라 정서에 할리우는 자극적이고 새로워 오락거리를 찾는 젊은이들을 빠르게 동화시켰다. 외국 문화를 온몸으로 옹호하는 우리나라 청년들은 내년에 더 늘어나 있을 것이다. 무분별한 문화 수용을 질책하고 싶다가도 이런 빠른 변화는 내가 오히려 생각이 뒤쳐진 것인지 생각해보기도 한다. 재미있는 문화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격변하는 문화를 어디까지 받아들여야 좋은 것인지도 잘 모르겠다. 이제는 이맘때가 되면 아이들을 위해 미리 사탕이라도 사놓아야 할지 의문이다.

사하공화국 야쿠트어로 알아보는 우리나라의 뿌리

우리학교 노어과 강덕수 교수



우리학교 노어과 학과장 교수로 재직 중인 강덕수 교수는 우리학교에서 러시아어를 전공하고, 미국 위스콘신대학교 메디슨캠퍼스 대학원에서 언어학을 공부했다. 최초의 한노사전을 공동편찬하고, 러시아어 언어학에 대한 연구를 계속 해오던 그는, 우연한 기회에 러시아의 자치공화국인 사하공화국과 인연을 맺게 됐다. 사하공화국에 설립할 고려인들을 위한 한국학교에 한국인 교사가 필요해 물심양면으로 도운 것이다.

현재 강덕수 교수는 사하공화국의 수도인 야쿠츠크의 한국학교 공동설립자인 동시에 한국·사하친선협회 회장으로 있다. 그는 사하공화국의 학술적 연구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전공을 살려 소수민족과 언어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강 교수는 사하공화국의 몇몇 소수민족의 언어가 한국어와 같은 뿌리일 것이라고 말한다. 실제로 그 언어의 많은 단어들 우리나라 말과 비슷하여 궁금증을 자아낸다.

사하공화국은 어떤 곳인가에 그를 매료시킨 것일까? 어떻게 먼 러시아 땅에 우리와 비슷한 언어가 존재할 수 있는걸까? 강 교수를 만나 의문을 파헤치고 사하공화국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했다.

사하공화국은 어떤 곳인가?

사하(Sakha)공화국은 극동 연방지구 북부에 있는 공화국으로 야쿠티아공화국이라고도 한다. 면적은 308만 3,500km²로 한국의 30배에 이르며, 러시아 전체의 17.3%에 달하는 크기로 러시아 연방의 21개 공화국 중에서 가장 큰 공화국이다. 사하공화국은 영토의 40%가 북극권에 있어 유라시아에서 가장 추운 겨울을 보내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지리, 자연 조건에도 불구하고 사하공화국은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좌측 하단은 러시아, 중앙은 그 안의 사하공화국이다. 야쿠츠크는 사하공화국의 수도이다.

이 지역의 울창한 삼림, 끝없는 툰드라와 특별한 동식물들은 학술보고의 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다. 또 사하공화국에는 다이아몬드, 금, 주석, 텅스텐, 천연가스, 석유 등과 같은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돼 있다. 강덕수 교수는 “세계 다이아몬드의 50%가 사하공화국에서 추출되고, 특히 천연가스가 풍부해 북한을 통해 우리나라로 수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사하공화국에는 러시아인, 투르크계인 야쿠트인을 비롯한 12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 지역은 여러 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곳이기 때문에 정말 매력적인 곳이고, 학술적 연구 가치가 다분하다고 말했다.

사하공화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

러시아인들은 슬라브계 민족이지만 야쿠트인을 비롯한 소수민족들의 혈통에 대해선 분명한 답이 없고 여러가지 설들이 존재한다. 강 교수는 13세기 이전에 사하공화국이 있는 자리에 살던 소수민족들은 ‘통구스족’이라고 주장한다. 통구스족은 오랫동안 고구려의 대다수를 이루는 기층 민족이었고, 고구려 멸망 후에는 발해연합체를 형성하는 부족이 됐다. 이후 발해는 거란족에 의해 멸망하고, 거란족의 상당수는 중국 대륙의 북부 지역으로 들어가 ‘요’왕국을 건설한다. 후에 요왕국 즉, 거란족은 몽골족에 의해 멸망한다. 몽골의 칭기즈칸은 무서운 기세로 주변의 여러 민족들을 복속시키며 하나로 통합해 나갔다. 이 중 하나가 ‘타타르족’이다. 그러나 타타르족의 일부는 칭기즈칸에게 반기를 들어 그 영향권 밖으로 도망쳤다. 그 일부가 북쪽으로 오면서 레나강 유역을 지나게 되었는데 그곳이 거대한 평원을 이루는 사하공화국이었다.

“사하공화국은 여러민족의 문화와 역사가 깃든 연구할 가치가 있는 곳”

타타르족이 도착한 지금의 사하공화국 자리에는 이미 통구스족 중 하나인 에벤키족이 살고 있었다. 에벤키족은 만주 지역에서부터 시베리아 지역까지 넓게 퍼져 살고 있었다. 이들은 뒤섞여 살게 되면서 서로 동화됐고 그 결과 야쿠트족이라는 새로운 민족이 생겨났다. 이들 야쿠트족은 시베리아 지역에서 가장 큰 소수민족이 됐다.

소수 민족들의 언어

사하공화국에서는 러시아어와 야쿠트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그 외의 크고 작은 소수언어들이 공존하고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소수 언어는 야쿠트어다. 투르크어에 에벤키족의 어휘가 섞이게 된 것이 오늘날의 야쿠트어다.

사하공화국에는 120개가 넘는 소수민족들이 살고 있지만 120개가 넘는 소수 언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 자신들의 언어를 잊어버리고 러시아어나 야쿠트어를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그나마 남아있는 것이 유카길어라는 시베리아 언어, 추크치어라는 북극해에서 쓰는 언어, 사하공화국 시골지역에서 쓰는 에벤키어이다. 그러나 사하공화국의 에벤키어도 갈수록 사라지고 있다. 에벤키어를 사용하는 인구는 4만 명 정도 밖에 안 되며 그나마도 줄어들어가고 있다. 강 교수는 사하공화국의 시골지역에서 사용되는 이 에벤키어와 한

국어의 유사한 점을 많이 찾아냈다.

사하공화국 야쿠트어의 어떤 것이 한국어와 비슷한한가?

그는 “에벤키어가 한국어와 어순이 같고 조사를 사용하는 것 등 문법 구조적으로 한국어와 비슷한 점이 많다”며 특히 비슷한 어휘들이 굉장히 많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에벤키어로 ‘물’은 우리말의 ‘물’, ‘물’은 숫자 ‘물’, ‘물레’는 ‘물레’, ‘무’는 ‘물’, ‘물리미’는 ‘물을 길어 온다’는 말로 우리나라 말과 매우 흡사하다. 또 에벤키어로 ‘아미’는 ‘아비’, ‘에니’는 ‘어미’, ‘아시’는 ‘아씨’, ‘아끼’는 ‘아저씨’를 의미하며, 아기가 걷는 모양을 가리키는 ‘아잠아잠’은 에벤키어로 ‘아란아란’, ‘얼음같이 차갑다’ 할 때의 ‘~같이’는 ‘가친’ 또는 ‘깨친’이라고 한다. 에벤키어로 ‘뉘게계친’, ‘호모가친’은 각각 ‘얼음같이’, ‘곰같이’라는 뜻이다.

“관점에 따라 역사의 시작점도 달라져, 폭넓은 역사인식 필요”

또한 강 교수에 따르면 에벤키족은 스스로를 발해의 후손으로 여기고 있다고 한다. 그들의 언어는 동부 시베리아와 만주 지역의 통구스 민족이 사용하는 언어 분류인 통구스 어족이다. 우리나라 말 역시 통구스 어족인데 위와 같이 에벤키어가 우리말과 많이 비슷한 것으로 보아 같은 뿌리인 것으로 추측된다고 했다.

그는 “야쿠트어에도 한국어와 비슷한 말들이 있다”며 설명을 이어갔다. 야쿠트어에는 한국의 ‘단군’, ‘오랑캐’와 비슷한 단어가 있다. 야쿠트어로 ‘트근’은 과거 시대에 족장이나 제사장을 일컫던 용어로 한국어로 ‘단군’을 의미한다. 또 시베리아에는 ‘우랑카이’라는 말이 널리 퍼져 있는데 ‘우랑카이’는 우리말의 ‘오랑캐’와 비슷한 어휘로 ‘용감한 무사’라는 의미다. 이외에도 야쿠트어나 에벤키어에는 어휘적으로 유사한 것들이 꽤 있다. 강 교수는 “이 지역의 소수언어 연구가 우리말의 뿌리를 찾는 일과 닮고,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사하공화국에서의 연구로 풀어보는 우리나라의 뿌리

강덕수 교수에 의하면 ‘알타이 공동체’는 우리의 뿌리를 찾는 데 중요한 단서이다. 알타이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로부터 우리나라 근원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민족들은 만주와 바이칼호수 주변에 살던 알타이 공동체에 속해 모두 같은 민족이나 다름없었다. 후에 우리는 한반도로 내려오고 알타이 공동체에 속한 나머지 민족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았다.

고구려·발해 때는 만주족, 여진족, 말갈족 모두 같이 살았다. 조선시대로 오면서 삼국통일을 하며 우리 민족은 반도에 정착해 우리만의 문화와 언어를 형성하게 됐다. 강 교수는 크게 보면 ‘알타이 공동체’라는 점에서 모두 같은 민족이라며 “터키사람들이 우리를 형제나라로 부르며 6.25 전쟁을 도와 줄 수 있었던 것은 알타이 공동체 뿌리를 역사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한반도에 본격적으로 정착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역사를 보는데, 이는 굉장히 축소된 역사라고 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역사의 범위를 넓게 보면 연구는 우리의 근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고고학적으로 보면 우리는 만주나 바이칼 쪽에서부터 왔다. 강 교수는 “우리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알기 위해서는 역사적, 인문학적으로 더 많이 연구할 의무의 필요성을 느낀다”며 역사와 문화 연구를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를 아는 것이고, 지금 사하공화국을 가장 잘 밝힐 수 있는 것은 언어에 대한 연구라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러시아어와 언어학을 전공했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자신의 연구를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이번 달 14일에는 사하공화국에 설립한 학교의 20주년이 되는 날이라 또 러시아를 방문한다. 이 지역의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한 강 교수는 앞으로도 꾸준히 연구를 지속할 것이라며 앞날에 대한 열정을 표했다.

글 유다송 기자 89baquibullae@hufs.ac.kr
사진 최소영 기자 87artist@hufs.ac.kr

〈강덕수 교수님 논문 및 참고 문헌〉

- 노어의 한글표기-어떻게 할 것인가 (한·노 음운체계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노어노문학회지 창간호 1p ~ 26p 1225-0414 (KCI 등재) 1987
- 솔제니친소설의 언어학적 분석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를 중심으로) A Linguistic Approach to "Odn den" Ivana Denisoviča 한국노어노문학회지 제2권 107p ~ 126p 1225-0414 (KCI 등재) 1989
- 18세기 러시아 문학어 발달 유형에 관한 고찰 슬라브학보 1,1(86.12) pp.1-25 1229-0548 (KCI 등재) 1986
- 노한 동시 통역의 언어학적 모델 연구 한국노어노문학회지 9(97.12) pp.3-28 1225-0414 (KCI 등재) 1997
- 러시아의 언어 분포에 관한 공간적 이해 슬라브연구 제26권 1호 (2010년 6월) pp.163-190 1225-0406 (KCI 등재) 2010
- 야쿠티야 맘모스와 다이아몬드와 착한 사람들의 나라 저자 강덕수 한국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11

뒷담하는 기자

취재 뒷이야기

임정혁 기자

이제 다 외대학보 때문이다



“정혁학생, 요즘 무슨 일 있어요? 예전 같지 않아요” 2학기 에 학보사의 정기자로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 후 교수님 들에게 가장 많이 듣는 소리다. 1학기엔 나를 착실했고, 시간나면 열심히 책도 읽으면서 정말 알차게 보내는 학생이었다. 그런데 2학기가 시작되고 “요즘 왜 그러냐”, “정신 차릴 때도 되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스스로 봐도 요즘은 1학기 같지 않다. 무언가 정신없이 움직이고,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막상 수업에 들어가면 기억나는 것이 없고 속제는 돼있지 않다. 그렇다고 취재가 잘 돼있어서 바로 글을 쓸 수 있는 상태도 아니다. 이런 상황을 처음 인지했을 때 이 상황이 너무 비효율적으로 보이고 ‘이제 다 외대학보 때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나에게 필요 이상의 부담이 되는 것 같았다.

그렇지만 필자는 아직도 이 자리에 앉아서 글을 쓰고 있다. 그 이유는 스스로도 모르게 이번 만큼은 이성적인 계산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차분히 생각해 볼수록 왜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가 의문이다.

필자의 고등학교 시절 필자의 꿈은 기자가 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학에 입학하고 외대학보는 필자에게 ‘꿈’이었다. 아무리 따져 봐도 손해 같아 보이는 이 일을 아직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의식중에 오랜 꿈이었던 이 자리를 지키고 싶어서인지도 모르겠다.

그렇다고 이성보다 마음에 끌려서 남아있는 것을 바보 같은 짓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성으로 하는 계산은 학점과 몸의 편안함 같은 눈에 보이는 것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하지만 마음으로 하는 계산은 지금까지 알지 못한 ‘나’를 찾게 해준다.

학보사 기자를 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 밤을 새서 글을 쓰며 생각을 정리하는 법을 배웠다. 다른 사람을 취재하면서 지금껏 갖지 못했던 의견을 듣고 스스로 가치관을 적립해 나갈 수 있었다.

사실 기자라는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고등학교 때까지는 그저 백일몽에 불과했다. 그냥 멋있어 보이고, 마냥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었다. 그런데 기자 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있다. 꼭 기자가 아니더라도, 이제는 어떤 방식으로 좋은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가 알게 됐다.

비록 지금의 필자에게서 1학기의 ‘정혁 학생’은 찾아보기 힘들지만 이전 흔들리지 않는 ‘나’를 찾아가는 듯하다. ‘나’를 찾을 수 있었던 계기에 대해 다른 것은 특별히 생각 나지 않는다. 다만 ‘이제 다 외대학보 때문이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혹시 학보사 생활이 너무 해보고 싶은데 뛰어들었다가 학점이, 나의 공강 날이 망가질 것이라는 계산 때문에 뛰어 들지 못하고 있나? 그런 분들에게 단호하게 외친다. 마음대로 해라. 그리고 외대학보로 와라.

어깨너머 듣는 교양

조수진(미네르바 교양대학 · 한국명작의 이해와 감상 강)

한국 명작과 경험의 세계 작품 속의 ‘나’를 발견하다

문학은 인간의 기본적인 감정이 독서라는 인지작용으로 전달되는 글이다. 니체는 <비극의 탄생>에서 음악이 인간의 정서를 가장 직접적으로 전달한다고 했고, 리처즈는 그의 문학비평 이론에서 문학 작품의 정서는 이미지의 상상 작용을 거쳐 문자를 인식하는 과정으로 독자에게 수용된다고 한 바 있다. 이렇듯 문학은 일차적인 감정을 전달하는 음악과 회화의 정서에서 더 나아가 인지적인 상상작용을 거쳐 정서가 전달되는 글이다.

문학 작품으로 전달되는 문학적 정서는 독자가 경험하는 세계에서 끊임없이 재창조된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명작과 만남은 소설 속 인물과 문학 작품을 읽는 독자의 경험과 조우하면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더욱 풍성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필자는 수업을 하기 전에 항상 학생들과 명작을 선정하는 작업을 한다. 그 과정에서 시대와 세대를 넘어 우리에게 사랑받는 작품들

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우리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1930년대 소설가 구보 씨가 소설을 쓰기 위해 거닐었던 종로 거리의 예를 들 수 있다. 지금은 모습이 많이 달라진 거리를 걸어가는 사람들의 일상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고, 구보 씨가 경성역에서 발견했던 ‘군중 속의 고독’ 역시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비슷한 방식으로 존재할 것이다.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은 <운수 좋은 날>의 김첨지와 같이 현대 사회의 모순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세차게 지나간 소나기처럼 아프게 사랑하며 성장하는 이들도 있을 것이다. 비가 오는 날 <서쪽하늘>이라는 노래를 들을 때면 <소나기>의 ‘소년’이 아직도 소녀를 그리워하고 있을지, <중국인거리>의 뒷박머리 소녀는 어떻게 성장했는지, 잘 살고 있을지 궁금해진다.

또한 <삼포 가는 길>을 읽을 때면 느껴지는,

산업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향을 떠나 일 자리를 찾아 떠도는 뜨내기 노동자들의 정서적 공감대와 <난장이가 쓰아올린 작은 공>의 도시 재개발 문제는 아직도 우리의 문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이러한 작품 속의 장소를 찾아가는 것을 좋아해서 학생들에게 명작의 장소를 찾아가는 과제를 준다. 구보 씨가 소설을 쓰기 위해 걸었던 종로 거리는 대학 시절 필자가 방향하던 곳이고, <중국인거리>의 차이타운은 바다가 보고 싶을 때면 훌쩍 가보던 곳이다. 작품 속 인물들이 거닐었던 공간을 경험할 때마다 필자는 평범하거나 그 이하의 인물들에게서 동질성과 공감을 많이 얻는다. 그 인물들과의 만남은 필자가 소설을 읽을 때 고독하지 않은 이유가 된다. 그래서 소설 쓰는 구보 씨와 같이 어쩌면 고독이 또 다른 행복이 될지 모른다.

일시
정지

문자를 온몸으로 느끼다



▲ 세종문화회관 예술의 정원에서 한 남매가 점토 덩어리에 문자를 새겨 넣으며 즐거워하고 있다. 제1회 세계문자심포지엄 2014에서 문자는 대중에게 친근하게 다가갔다. 참신한 디자인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았고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었다. 이 학술대회의 의의는 문자의 중요성을 알고 문자의 다양성을 살리자는 것이다. 외대 학생인 만큼 언어와 문자를 지키는데 조금 더 힘쓰자.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지나호를 말하다

백송이(서양어 · 노어 10) 서울배움터 독자위원

독자위원도 좀 봐주라

매번 수습기자 모집광고가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배움터 학보사 전화번호 오타가 수정되고 있지 않다. 오타가 유난히 많았던 호다.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오타가 많으면 신뢰성이 떨어진다. 유의해 주길 바란다.

전체적으로 깔끔하지만 단조로웠다. 지난 호에 비해 불필요한 코너들이 줄어들어 깔끔했고, 심층적인 메인 기사가 없어 단조로웠다.

기사 내용은 대체로 좋은 평을 받았다. 개교 60주년 음악회, 다독상 시상, 양 배움터 정기총회, 한국어교육과 기념행사, 흡스리그 등 학생들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고 시의성 있는 학교소식을 전해주는 어 유익했다는 의견이다. 5면의 기획기사는 한글날을 맞아 적절한 주제, 재미있는 소재로 읽는 재미를 주었다. 다만 왼쪽 하단의 올바른지 않은 맞춤법과 함께 알맞게 고친 맞춤법도 기재했으면 더욱 유익했을 것이다.

학보 지면 수에 비해 기자 인력이 매우 부족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이번 호처럼 불필요한 내용을 생략해 지면 수를 조금 줄이고, 학부나 학과마다 기고를 받아 더 많은 학생들의 목소리를 듣는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이다.

또 다른 문제는 학보의 신뢰성이다. <외대인이 만난 세계>는 지난 호부터 세계여행 중인 한 학생의 기고로 연재된다고 했지만 이번 호는 뜬금없이 다른 학생의 연재가 실려 의아했다. 이번 학기부터 실린 음악 소개 칼럼인 <5분 썬포>가 이번 호에 갑자기 사라진 것도 아쉽다. 대학생다운 감성이 느껴지는 글이어서 나름 재미있는 시도라고 생각되었던 터라 더 그렇다. 이렇듯 고정코너가 갑자기 사라지는 건 꾸준히 읽어오던 독자들의 신뢰를 잃게 하는 태도다. 이번 호 그 코너에는 어떤 내용이 실렸을까 기대하고 읽어보는 맛도 없어진다. 한 코너의 존폐여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주길 바란다.

외대학보 기자들이 학보 하나를 발간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써가며 얼마나 고생하는지 느끼고 있다. 그래서 독자위원들도 애정을 가지고 한 글자 한 글자 꼼꼼하게 읽고 세심하게 비평하는 것이다. 이런 피드백이 쌓여 언젠가 좋은 결과물이 나올 거라 기대하며, 기자님들아, 독자위원의 이야기도 좀 봐주라.

지나호를 말하다

한동재(통번역 · 일본어 10) 글로벌배움터 독자위원

외대학보의 발전을 기대하며

개교 60주년 기념 음악회의 개최 소식이 1면을 장식한 점이 맘에 들었다. 하지만 글로벌배움터에서 열린 기념 전시회와 통번역대학축제와 같은 다양한 행사에 대한 언급이 없어 학생들의 공감 증진에 기여하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뿐만 아니라 지난 호에서 대학평가의 문제점에 대한 사실을 기재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번 호 학보 1면에 대학평가 국제화 1위를 실어, 사실의 내용과 정면으로 대비되는 기사를 실은 점이 다소 아쉽다.

2면에는 교내 독서왕 시상식에 대한 기사가 실렸다. 우선 기사의 제목이 너무 길다는 생각이 들었다. ‘양 배움터 정독상 · 다독상 시상’이라는 부분을 부제로 삼았으면 가독성 측면에서도 더 좋지 않았을까하는 아쉬움이 남는 대목이다. 또한 독서왕 시상식은 9월에 시행된 행사로 2주라는 출간 간격을 고려하더라도 다소 늦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3면에서는 서울배움터에서 열린 총장과의 대화 소식과 영어마을 부지에 대한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의문을 가지고 있던 부분에 대한 해소가 이루어져 좋았다. 그 후인 6일에 글로벌배움터에서도 총장과의 대화가 열렸는데 학보에서 미리 소식

을 전해들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또 영어마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추후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는 대로 따로 보도가 이루어졌으면 한다.

5면에서는 한글날을 맞이하여 맞춤법 사용에 대한 기획기사를 다루었는데, 한글날을 다시금 돌아본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사라 다소 아쉬움이 남았다. 외국인 교수님이나 학생들에게 한글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거나 의식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등 외대의 특성을 살린 기획기사로 구성되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한편, 교수님들이 본인의 학과와 전공에 관한 문화를 소개하는 지면이 보이지 않아 아쉬웠다. 평소 해당 지면을 즐겨 보던 독자로서 해당 지면의 취지에 공감하고 있던 터라 더욱 아쉬움이 남았다.

기자분들의 노고가 매번 기사와 사실에 고스란히 드러나 안타까우면서도 덕분에 학교의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어 이 기회에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 앞으로도 좋은 기사를 써 주시리라 믿는다.

세종대왕도 울고 갈 일편단심 언어 사랑

유재원 교수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일까지 10일간 세종문화회관에서 '세계문자심포지아 2014'가 열렸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문자의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해 이번 해 처음으로 개최된 학술대회의 중심에는 유재원 교수가 있었다.

Q. '세계문자심포지아 2014'는 학술대회와 예술 프로그램의 만남이었다. 신선한 발상인 듯한데 어떠한 의도로 개최했는가?

학술대회가 아무리 뜻이 좋아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야 성공적인 학술대회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문학 학술대회만 개최하면 사람들이 잘 참석하지 않는다. 반대로 예술가들에게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 즉 매력이 있지만 내용적인 면에서 부족한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인문학과 예술의 만남은 상호보완적이라고 생각했다. 대표적인 예로 인포그래픽이 있다. 인포그래픽이란 그림으로 정보와 지식 등을 표현한 것이다. 하지만 내용이 부실하면 인포그래픽은 의미가 없다. 이러한 예술 매체를 이용해서 보다 매력적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많은 도서를 통해 정보를 얻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이외에도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다양한 예술 프로그램을 마련해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했다.

유 교수는 '세계문자심포지아 2014'를 주최한 세계문자연구소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세계문자연구소란 인류문명의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문자의 다양성을 지키는 기관이다. 세계문자연구소에서는 문자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다. '문자는 형식과 내용이 하나로 어우러진 기호며 지식과 정보를 담는 그릇이다. 그 그릇에 담긴 지식과 정보가 문명이다. 문자는 언어의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는 도구다. 문자는 공간의 축을 넓혀 지식을 확장하고 시간의 축을 따라 지식을 축적한다. 문자는 지식을 체계화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Q. 세계문자연구소를 설립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세계화가 되며 하나의 언어가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다. 그러면서 많은 언어들이 사라지고 문자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 조선 500년 동안 한글은 편지를 쓸 때나 이용됐고 한자가 활발히 사용됐다. 이 시기에 한국 문명은 어떠한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중국어로 학문을 하고 모든 고급 언어 생활을 한자로 했는데 그 지식과 문명들이 정말 우리 것인가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우리말 대신 외국어에 의존하려고 한다. 일본은 일찍이 자신들의 언어로 모든 분야의 학문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들은 물리학, 화학, 수학, 자연과학까지 모두 일본어로 한다. 일본은 언어정책 특히 학문을 탐구할 때 사용하는 언어(이하 학문어) 정책이 있어서는 대단한 나라다. 그들은 약 140년 동안 서양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번역해서 자신들의 언어로 만들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문헌을 서양어로 번역하면서 끊임없이 학문어를 정립했다. 그래서 그들은 동아시아 최강국이 됐다.

또 다른 추세에는 기득권층의 언어 독점이 있다. 이들은 사회의 안정을 가장 좋아한다. 안정을 더욱 공고히 하는 최고의 진입장벽은 바로 외국어다. 기득권층이 외국어를 통해 자신들만 권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만들면 그 외의 사람들은 소외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이유로 중국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학문어를 읽지 못한다.

이러한 언어의 독점과 획일화를 막기 위해 등장한 것이 세계문자연구소다. 세계문자연구소는 문자의 다양성을 지키는 기관이다. 하지만 단순히 문자가 다양화되는 것만으로는 의미가 없다. 문자 간의

균형을 통해 서로 조화를 이뤄야한다. 세계문자연구소는 여러 다른 나라 사람들과 함께 협력해 자신들의 말과 문자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고자 힘쓴다.

Q. 이번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나?

처음에는 우리학교와 공동주최를 하고 싶었다. 개교 6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계획했다. 하지만 의견이 맞지 않아 학교는 학술대회만 협력했고 다른 예술 프로그램에서 우리학교는 빠졌다. 우리학교의 각 학과의 학생들이 참여해 전공언어를 마음껏 자랑하고 공연하며 일반인들에게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보여주고 싶었으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 세종문화회관에 각 나라의 문자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득실 거리는 곳을 만들고 싶었다.

유 교수는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다.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한 10년간 일을 했다. 빌 게이츠도 세 번이나 만났다. 마이크로소프트 워드프로세서 맞춤법검사기도 유 교수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언어학계에서도 많은 업적을 남겼다. <한국어 음성 인식을 위한 음운 규칙에 대한 연구>논문으로 '한글학회 우수 논문상'도 수상했다. 게다가 우리말 역순사전을 편찬했다. 역순사전이란 사전 표제어의 배열이 일반 사전과 반대로 돼 있어 단어의 마지막 음절부터 거꾸로 찾아보는 방식의 사전이다.

우리말은 기원을 찾을 때 비교할 다른 말이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남아있는 구조적인 차이를 연구해서 이전 언어의 모습을 찾아야하는데 이를 내적 재구라고 한다. 내적 재구를 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역순사전이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 언어 연구에 있어 최고 권위자이기도 하다. 어떤 이유로 전공과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리스에 빠지게 된 것일까?

Q. 서울대학교에서 언어학과를 졸업하고 그리스로 유학을 떠났다. 왜 하필 그리스인가?

대학교 때 하고 싶었던 공부는 한국어 계통론이었다. 한국어 계통론이란 한국어는 어디서부터 왔고 한국인들은 누구인가를 언어학적으로 밝히는 학문이다. 이를 공부하기 위해선 우리나라와 가까운 언어로 알려진 만주어, 몽골어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다. 그래서 대학교 때 만주어와 몽골어 공부를 시작해 포페, 람스테트 같은 이 분야의 독보적인 서양학자들의 책을 많이 읽었다. 이 분야를 공부하던 중 이들의 만주어 연구와 몽골어 연구에 교류가 없었다는 문제를 발견했다. 이 두 언어는 같은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지만 포페와 람스테트의 책에서 공통적이거나 유사한 요소들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듯 알타이어계 방법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교수한테 문제를 제기했더니 그러한 역사언어비교학을 통해 계통론을 공부하려면 인도유럽언어학을 하라고 조언해줬다. 그 학문에는 19세기에 젊은 문법 학자가 이뤄놓은 훌륭한 업적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 익힌 방법론으로 알타이어를 공부하는 것이 돌아가는 길이지만 가장 좋다는 것이었다. 그러면 어느 대학을 가는 것이 좋은지 문자 교수는 시카고 대학을 추천했다. 그런데 때마침 독재 정치에서 벗어난 그리스가 유학생들을 유치하기 시작해 그리스 정부 장학금을 받을 수 있었고 인도유럽언어학을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어가 필수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시카고 대학을 추천하는 바람에 반쯤질이 작용하기도 했다. 선배들의 뻔하디뻔한 미국 유학과 그 이후의

과정을 답습하고 싶지 않았다.

이러한 여러 정황상의 이유로 그리스 유학을 택하게 됐다. 미국으로 갔다면 지금보다 좋은 위치에서 잘 살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그런 사람들 중 하나였을 것이다. 따라서 그리스 유학은 좋은 선택이었고 현재의 삶에 만족하고 있다.

Q. 그리스어를 연구하면서 느꼈던 그리스어 혹은 그리스인의 특징은 무엇인가?

서양의 학문어는 아직도 그리스어다. 새로운 학문어를 만들 때도 그리스어의 어원을 가져다 만든다. 그러므로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 그리스어도 덩달아 풍부해지는 셈이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인들이 자신들의 언어에 대해 가지고 있는 긍지와 애정이 대단하다. 교육 환경도 우리나라와 많이 다르다. 초등학교 1,2학년 시기에는 학교 수업에 국어시간 뿐이다. 다른 과목은 가르치지 않고 시 암송과 말하는 법, 표현하는 법, 쓰는 법에 관한 수업만 진행한다. 지식 교육보다 국어 교육에 더 힘쓴다.

세계 최초의 언어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처음한 사람들이 그리스인이다. 게다가 문명 발생지에 쌓인 상당한 양의 문자 정보들을 처음으로 체계화해서 학문으로 만든 사람들 또한 그리스인이다.

이렇듯 우연한 계기로 그리스와 연을 맺게 된 유 교수는 현재 한국·그리스 협회 회장직을 맡으며 그리스어 연구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남아있다. 그의 가장 큰 업적은 그리스어의 한글 표기법을 최초로 정립한 것이다. 유 교수가 그리스에서 돌아와 이를 바로잡기 전까지는 영어, 라틴어, 그리스어가 혼용됐다. 사람들이 그리스 학문을 정확하게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가 우리나라 말로 그리스어를 어떻게 적느냐의 문제를 깨끗이 해결한 덕분에 현재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어를 쉽고 정확하게 배울 수 있게 됐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가?

세계문자연구소를 통해서 고급 인력들이 주축인 질 높은 양방향 번역국을 만들고 싶다. 누가 우리말로 글을 잘 쓰고 논문만 잘 쓰면 세계에 어떻게 알릴까 고민하지 않더라도 세계문자연구소에서 다 번역해서 외국에 내보낼 수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꼭 봐야하는 훌륭한 외국 도서를 스스로 골라서 우리말로 번역해 사람들이 훌륭한 도서를 질 좋은 번역본으로 읽을 수 있게 만들고 싶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채택된 <세계 문자 서울 선언>에 '각국 정부는 기록물의 유통과 문자생활의 향유를 적극 지원해야 한다는 조항을 넣어 기록·번역물의 유통을 특별히 강조한 이유도 이와 관련돼 있다.

인터뷰가 끝나고 함께 한 저녁식사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밝혔다. 자신은 항상 주류의 반대편에서 왔다고. 쉽고 편한 길을 택해 더 좋은 위치에 갈 수 있었지만 세종대왕과 주시경 같은 위대한 분들을 알게 된 이상 절대 그럴 수 없었다고.

글 이진형 기자 89matteo@hufs.ac.kr
사진 유다송 기자 89baquibullae@hufs.ac.kr